



농어강산

11

주체108(2019)
루게 제363호 월간

어머니들에 대한 생각

사색적으로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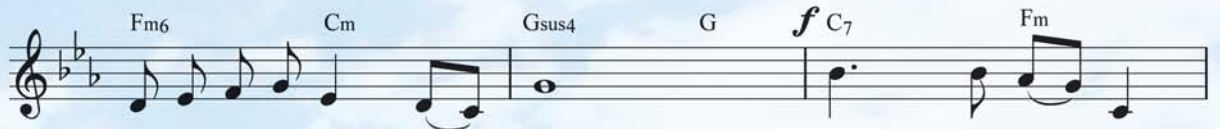
작사 최로사, 작곡 류용남



1. 그대여 머리 흰 어머니들을 무심히 무심히



생각마시라 꽃 나이그 시절 총 을 잡고서



포 화 속 을 헤 치 - 며 내 조 국 - 을



지 키 여 - 낸 우리들의 어머니

2. 그대여 머리 흰 어머니들을
무심히 무심히 생각마시라
허리띠 조이며 폐허 헤치며
땀에 젖은 치마폭에
너와 나도 키워오신 우리들의 어머니

3. 그대여 머리 흰 어머니 보며
자신의 마음도 비쳐보시라
우리도 그날의 어머니처럼
당을 위한 그 마음이
아 어머니처럼 뜨거운가를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도

단 한점의 오차가 생길세라 마이크로측정을 진행하며 제품의 질을 담보해나가고있는 밀영합영회사의 생산자들.

이곳에서 생산한 수지지붕재는 색칠판지붕재보다 내부식성이 강하고 열차단성이 높으며 소음발생률이 낮은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임정국

차례

우리의것으로 간장되여가는 거리	3
일 화	
전재공업의 추체화를 실현하는 길에서	6
마감건재공업의 자립성을 추동한다	7
순천의 세멘트생산자들	8
수요가 높은 수지지붕재	10
기능철강개발자들	12
사문석가공제품들	14



반 향	
인기있는 정치가	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9. 18사변	16
사회주의위업실현의 진로를 명시한 강령	18

반 향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조선	19
교육조건개선에 힘을 넣어	20
마음속의 밝은 《달》	22
본분을 다해가는 사람들	24
우승을 이어가는 교예배우들	26
첫걸음	29
광천의 효과만이 아니였다	30
어머니의 행복	32





38

고향소식

초정약수로 이룬반 고장 34

조국의 품에 안겨

개성적인 연기로 인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 . . . 36

첫선을 보인 《비약》가방 37

불야경을 펼쳐가는 사람들 39

편지

조국에 꼭 와보십시오 40

인상기

잊을수 없다 41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어 41

고국방문

잊지 못할 나날에 42

단상

영차! 44

수기

《보약》 45

우리 민족의 반침략투쟁사 (7) 46



50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11) 47

민족의 향기

천연의 맛과 향기가 담겨진 우영차 48

남포시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3) 49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11) 50

사화

계월향비에 깃든 이야기 52

야화

윤희의 도량 53

친일매국당의 뿌리 54

역사인물

실학자 리수광 54

일본의 미래는 어디에 56

상식

선로들이 지켜온 로리원리 12

8도와 13도 23

심장단련에 좋은 땀줄운동 38

유모아

농부의 꾀 47

조선속담 (웃과 관련) 55

우리의 것으로 만장되여 가는 거리

건재는 건설의 3대요소중의 하나이다.

설계가 아무리 좋고 시공을 잘하였다고 해도 마감건재가 따라서지 못하면 건축물을 훌륭히 일떠 세울수 없다.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오늘 조국땅 어디 가나 우리의 힘과 기술, 원료로 만든 마감건재들이 건물들의 내외부를 아름답게 장식하고있다.

미래과학자거리를 봐도 그래, 려명거리를 봐도 그래 큰 거리로부터 각종 공공건물들과 봉사건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만든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마감건재들이 리용되고있다.

최근년간 조국에서는 마감건재를 주체화하기 위한 연구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과학연구부문뿐만아니라 여러 부문에서 국내의 원료로 건축물의 품위를 높일수 있는 마감건재들을 개발생산하고있다.

해마다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대전람회 가 진행되어 건재품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좋

미래과학자거리



은 경험들이 교환되고 평양국제록색건재 및 가구 전람회도 개최되어 건재생산자들의 시야가 넓어지고있다.

올해에 진행된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대전람회-2019만 놓고보아도 전국도처에서 일어나는 마감건재생산의 주체화열풍을 느낄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우리식으로 연구개발하여 내놓은 많은 마감건재품들도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특히는 지방원료를 가지고 만든 특색있는 마감건재품들이 참관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김일성종합대학, 대동강건재공장 등의 단위들에서 선진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새롭게 연구개발하여 내놓은 다색무늬칠감, 지방원료에 의한 콩크리트란간, 란주, 다기능성아크릴계칠감, 색미장재를 비롯한 마감건재들이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형태와 색깔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아니라 함경남도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 지방에 흔한 색돌과 강바닥돌, 석재광산에서 나오는 돌부산물을 리용하여 장식용인조연마바닥돌, 인조대리석들을 생산하였으며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어느 한 로동자는 파수지와 공업폐설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벽타일, 보도블록, 색기와를 만들었다.

해당 건물의 용도에 맞으면서 친환경적이고 현대적미감이 나는 록색건재를 비롯한 마감건재들을 국내의 기술과 자원으로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게 누가 더 많이, 더 질 좋게 생산하는가 하는것은 건재생산자들의 호상 관심사로 되어 경쟁열풍을 일으키고있다.

그 열풍속에 어제는 백두산건축연구원 건재연구소에서 착색모래에 의한 색미장공법을, 오늘은 김일성종합대학 지능칠감제작소에서 다색무늬칠감을, 밀영합영회사를 비롯한 여러 건재생산기지에서 질 좋은 마감건재들을 연구개발하여 대량 생산하고있다.

건재공업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이러한 현실은 나라의 건재공업토대를 튼튼히 다져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에 벌써 파괴된 도시와 농촌, 공장과 기업소들을 복구건설하자면 세멘트와 벽돌을 비롯한 건재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재공장들을 복구건설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건재생산은 건설

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시면서 전국도처에 나라에 흔한 원료를 가지고 건재를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현대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들을 건설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에 의해 나라의 곳곳에 건재생산기지들이 일떠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품들어 마련해주신 건재공업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가시었다.

그이께서는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재를 국산화하는것은 건설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요구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긍지를 안겨주고 신심을 높여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된다고 밝혀주시었다.

그리고 건재생산기지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건재품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전문화, 전통화하도록 하시였으며 마감

건재공장들에서 건재품의 질을 높이고 건재의 다양화, 다종화를 실현해나가도록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국내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여 건물의 외벽과 내벽, 바닥타일뿐아니라 인조대리석을 비롯한 마감건재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는 천리마타일공장을 주체101(2012)년에 찾으신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타일을 여러 중요대상건실장들에 많이 보내주었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매우 만족해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우리가 설계하고 일떠세운 건물들에 우리가 만든 타일을 붙일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긍지가 있는가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입는 옷에 비유하면 속옷과 겉옷이 모두 우리것이 된셈이라고 말씀하시었다.

2년후 또다시 공장을 찾으시여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필요한 건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자면 공장에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발휘된 영웅적투쟁정신이 내려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동강타일공장으로 불리우던 공장이름을 《천리마타일공장》으로 명명해주시었다.

접착제직장, 타일생산직장, 수자식천연색분무인쇄실, 타일전시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새 제품개발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고 하시면서 비결은 우리의 자원과 원료, 우리의 기술로 건재품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이악하게 투쟁하고있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시고는 접착제, 메움재, 방수제 등 타일시공에 쓰이는 건재품생산기지과 여러가지 문양과 그림을 마음먹은대로 인쇄할수 있는 수자식천연색분무인쇄실도 새로 꾸려놓았으며 벽돌 및 석재질감이 나는 고급타일들도 생산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주체105(2016)년 8월 생산기술도입과 설비제작 및 운영이 극히 어려워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는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새로 꾸린 순천화학연합기업소도 찾아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고 설비들도 모두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제작하였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건물벽체는 물론 각종 금속과 목재를 도색하는데 그저 그만인 여러가지 색깔의 외장재, 내장재뿐만아니라 토양개량 및 수분보충제인 테라코렘도 짱짱 생

산하고있는것을 보니 흐뭇하다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오늘 좋은것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고 가슴이 뭉클하도록 기쁜것은 단순히 우리 식의 아크릴계칠감을 생산하는것을 보게 된것만이 아니라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화학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절감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정녕 우리의것을 제일로 여기시는 그이의 령도아래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건축물들은 자기의 특성을 드러내며 거리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하기에 미국신문 《로스앤젤스 타임스》인터넷홈페이지는 평양에 일떠선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소개하면서 《최근 북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국제적인 제재속에서도 도시를 새롭게 변모시켜나가신다. 말그대로 불야경을 이룬 도시는 기발한 착상들에 의해 일신되고있다. ... 이탈리아의 한 건축가는 조선방문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평양을 본보기도시로 소개하는 책을 출판하였다.》라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엄향심**

려명거리



우리의것으로 단장된 기념비적건축물들



전재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 길에서

경축대회주석단을 내리시는 길로

정답아 불리주신 공장이름

조국땅에 포성이 멎은지 이틀째되는 날인 주체42(1953)년 7월 28일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살림집을 지어주시기 위해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주석단을 내리시는 길로 강남요업공장(당시)을 찾으시였다.

무너진 벽체와 쌓인 재무지, 깨어진 벽돌장들로 하여 구내에는 발을 옮겨놓을 자리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런것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소성로를 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장일꾼들에게 1년에 1억매이상의 벽돌을 생산할수 있는 공장을 올해중에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마다 1억매이상의 벽돌을 생산하자면 이곳에 10기의 소성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그중 5기는 자동차로 벽돌을 나르는데 편리하도록 별판에 세우고 5기는 대동강물길로 나를수 있게 제방쪽옆에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까지 잡아주시였다.

이날 공장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일꾼들에게 평양시민들이 건너다보고 저 공장이 평양시를 복구건설하는 공장이라는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장에 불도 환하게 켜놓고 야간에도 계속 작업을 할수 있게 조건을 잘 지어주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이 완공된 후에도 공장에 나가시어 벽돌생산정형을 료해하시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주체100(2011)년 11월 25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애국돌가공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에 도착하신 그이께서는 한해에 수십만m²에 달하는 천연석재들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이 큰 생산기지를 공장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였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사실 국가에 손을 내밀거나 외자를 한푼도 도입하지 않고 순수 자체의 힘으로 이런 현대적인 돌가공공장을 일떠세운다는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명실공히 조선의 재부, 주체가 확고히 선 공장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소음과 물안개, 돌가루가 날리는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설비들의 작업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이어 공지에 세워놓은 자행식 채석설비를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앞에 바라보이는 산이 다 화강석이라는 일군의 말을 들으시고는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뒤에 있는 돌광산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고 공장의 이름도 《애국돌가공공장》으로 고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돌은 하나도 버릴것이 없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이라고, 태고적부터 버림받던 막돌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우리 인민들에게 복리를 안겨주는 황금덩이가 되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나는 오늘 애국돌가공공장에 빈손으로 왔다가 억만재부를 안고가는 심정입니다.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니다.》라고 더없는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속옷과 겉옷이 우리의것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9월초 천리마타일공장(당시 대동강타일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의 생산실태를 하나하나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공장의 현대화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기본원료를 모두 주체화하였을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무연탄을 가스화하여 생산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보장하고있는데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 적지 않은 일꾼들이 수입병에 단단히 걸려있다고, 그러나 이곳 일꾼들은 남의것을 넘겨다보지 않는데 바로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든다고 하시였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타일을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많이 보내주었다는 보고를 들으시고는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설계하고 일떠세운 건물들에 우리가 만든 타일을 붙일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긍지가 있는가고, 사람들이 입는 옷에 비유하면 속옷과 겉옷이 모두 우리의것이 된셈이라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주체103(2014)년 8월 또다시 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공장의 이름을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에 자리잡고있다는 의미에서 《천리마타일공장》으로 고쳐주시였다. 그리고 이곳 로동계급이 천리마의 정신으로 생산에서 계속 양양을 일으켜나가기를 바란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김충국

마감건재공업의 자립성을 추동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마감건재의 주체화가 적극 추진되고있다.

조국에는 마감건재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첫 공정이라고 할수 있는 원료원천이 매우 풍부하다. 마그네사이트와 질석, 부사가 그 대표적이다.

단천마그네사공장에서는 생산원가가 높고 환경보호에 좋은 경소마그네사제품들을 생산하고있는데 그 질이 높아 널리 쓰이고있다.

경소마그네사로 만든 제품은 대기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므로 살림집에서 이런 마감건재를 쓰면 집안에 나무를 몇그루 심어놓은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공장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건재제품들을 개발할 목표밑에 연구를 거듭하여 자체의 원료와 기술, 설비로 경소마그네사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공정을 훌륭히 꾸려놓았다.

질석과 부사 등의 원료원천을 리용한 마감건재 제품들도 많이 생산하고있다.

청진스레트공장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던 중유대신 우리 나라에 풍부한 갈탄으로 부품진주암, 부품질석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질석으로는 마감장식특성이 높고 항균과 보온능력이 우월하며 습기 및 냄새제거, 소리흡수, 먼적외선 및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다기능질석판을 만들어 건축물장식에 리용하고있다.

부사는 우리 나라의 백두고원지대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어있다.

최근에 무봉부사마감건재중간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새로운 만능건재, 록색건재로 인정받고있는 부사를 건재제품으로 리용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부사로는 보온재, 천정재 등 여러가지 마감건재제품을 만들수 있다. 부사보온재를 쓰면 건물 실내에서의 부패되는 현상과 이슬점을 완전히 없앨수 있으며 부사천정재는 사람들의 미학적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인체에 유리한 건축환경을 마련하는데서 그 리용가치가 대단히 크다.

천리마타일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수입하여 쓰던 유약생산에 필요한 값비싼 프리트를 자체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타일의 원료가공공정에 쓰이는 감수제도 자체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내는 등 원료의 자급자족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이밖에도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가 실현된 실

용성이 높은 마감건재제품들이 많이 개발 생산되고있다.

공장에서는 국내에 흔한 원료와 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용도의 질 좋은 타일들을 생산하고있다. 천연색분무인쇄기로 그림인쇄를 한 장식타일들과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듯 한 유리화와 같은 광택이 나는 미정석, 인조 대리석, 자연돌질감이 나는 색보도블록과 석고 타일 등이 그 대표적이다.

올해 5월에 진행된 마감건재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주제로 한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 성과전람회에서 공장은 조국의 북부기후에 적합한 내동성외벽타일을 출품시켜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칠감 및 첨가제부문과 돌, 요업, 유리건재부문, 록색 및 보온재부문 등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전람회에는 25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와 제품들이 전시되었다.

그중에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출품한 기능성록색건축장식재료가 참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마감장식에 리용되는 재료는 외적인 에너지를 공급이 없이도 인체에 활력을 부여하는 음이온과 먼적외선을 항시적으로 방출시키는 가치있는 기능성록색건재이다.

이밖에도 평양건재공장에서 출품한 우리 식의 질 좋은 여러가지 위생자기제품들과 룡악산건재공장에서 내놓은 실리카질방수제, 향련기술교류소에서 내놓은 항균성아크릴계수성칠감 그리고 돌가공관리국 락랑천원사문석가공공장에서 내놓은 사문석란주, 란간, 돌가공제품들과 함흥목제품공장의 참나무마루널, 벽널을 비롯하여 다종다양하고 다색화된 질 좋은 마감건재들은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전람회는 조국의 마감건재공업의 자립성과 발전수준을 보여준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앞으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질 좋고 다양한 마감건재들을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될것이다.

평양시건재관리국 처장 최경진

순천의 세멘트생산자들



평안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는 조국의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이다.

지금으로부터 47년전 발족 당시의 세멘트공장은 오늘 대규모의 세멘트련합기업소로 자기의 년륜을 아로새기고있다.

질 좋은 석회석매장량이 풍부하고 철도와 도로, 용수조건 등이 유리한 곳에 자리잡은 기업소는 석회석광산과 석고광산, 내화물분공장을 비롯하여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모든 부문이 일체화되어있다.

기업소에서는 전반적이고도



지속적인 단계별 기술개선사업을 통해 세멘트생산의 주체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함으로써 질 좋은 수백만t생산능력의 세멘트생산기지로 전변되었다.

기업소는 지난 수십년간 수도 평양과 대기념비적건축물을 비롯한 수많은 중요대상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큰 몫을 담당수행하였다.

지금 기업소안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은 대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시정연설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세멘트증산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세멘트증산의 돌파구를 소성로들의 만가동에서 찾고 소성로보수기일을 결정적으

로 앞당기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소성로의 기본설비보수를 맡은 보수직장로동계급은 보수의 질이자 설비의 만가동이고 증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소성로동체지상확대조립공법을 받아들여 6개월이 걸려야 한다던 공사를 40여일이라는 기간에 앞당겨 끝냄으로써 로가동률을 훨씬 높였다.

한편 로보수작업의 선행공정을 맡은 소성직장 로동계급은 로조종의 안전성과 세멘트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안을 받아들여 세멘트증산에 이바지하였다.

기업소에서는 또한 설비들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정상가동을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연 2차

에 걸치는 기능공경기를 조직하여 설비개선보수에서 제기되는 60여건의 대상들을 대책하였으며 10명의 기능공들은 20여종에 7 000여점의 부속품들을 10일만에 생산보장하였다.

조종직장 직장장 백남철은 《애로는 많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설자리를 알고 강의한 정신력을 발휘해나간다면 세멘트증산목표는 결코 점령 못할 요새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기업소에서는 날로 높아가는 세멘트생산수요를 따라세우기 위한 능력확장계획을 높이 세우고 집행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수요가 높은 수지지붕재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고 있는 오늘 조국땅 그 어디서나 건축의 녹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어느 기관, 어느 단위 할것 없이 녹색건축 진재에 대한 수요와 요구성이

대단히 높아지고있다.

밀영합영회사에서는 높아가는 사람들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수지지붕재를 다량 생산하고있다.

주체96(2007)년 4월에 창립되어 각종 형식과 규격, 색깔

의 지붕재와 벽판재, 강철구조물 등을 전문생산하던 회사에서 수지지붕재생산에 달라붙은것은 1년전이었다.

그때 리성훈사장은 회사에서 생산된 색철판지붕재들이 시공후의 수명이 몇년 안되는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수명을 오래 보존하면서도 내부식성이 강한 지붕재는 없겠는가 하는 생각에 골몰하던 사장은 어느 한 과학기술잡지에서 수지지붕재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었다.

제품의 생산과 시공에서 신속성과 편리성을 보장할수 있으면서도 내부식성이 강하고 재생리용률이 높은 수지지붕재는 소음발생률이 낮고 열차단성이 높아 지붕재로서는 색철판지붕재보다 훨씬 우월하였다.

리성훈사장은 조국에서 생

산되는 폴리염화비닐을 주원료로 한 수지지붕재를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달라붙었다.

제일 난문제로 제기된것이 배합비율이었다. 그중에서도 보조첨가제들의 배합비율을 보장하는것이 잘되지 않았다. 매우 정밀한데다가 그 비율이 소수점아래로 차이나도 품질이 보장된 지붕재가 나오지 않았기때문이였다.

리성훈사장은 수지지붕재를 생산하는 여러 나라들에도 가보았지만 그 나라들의 기술자들은 노하우라고 하면서 알려주지 않았다.

믿을것은 자기 힘과 기술밖에 없다는것을 체험한 회사의 기술자들은 배합비율을 찾기 위한 연구사업에 착수하였다.

마침내 기술자들은 보조첨가제들의 배합비율을 찾게 되었으며 회사는 어디서나 호평받는 수지지붕재를 생산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게 되었다.

회사에서 만든 수지지붕재들

은 화학안전성이 좋은것으로 하여 반향이 대단했다.

보통강구역종합식당에서 일하는 황금실녀성은 《색철판지붕재들은 자연의 영향을 받아 시공후 못으로 고정된 부위에 녹이 쓸면서 부식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지지붕재는 건물을 시공하는데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 다. 정말 리용자들이 마음을 폭 넓게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수지지붕재들은 전국마감건재부분 과학기술성과전람회에 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지지붕재는 전국의 여러 건설장들에서 호평이 대단하다.

회사에서는 지금 건축물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지붕재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데 힘을 넣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국산화된 원료로

미크로측정을 진행한다.



지붕재생산현장



구매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생산된 제품들



기능철감개발자들

붉은색, 노란색, 풀색, 검은색...
여러가지 색깔의 철감이 서로 어울려 들어있는 자그마한 투명유리병을 흔들어보기도 하고 거꾸로 세워보기도 하는 사람들.
하지만 철감은 흔락되지 않고 자기 고유의 색깔들을 그대로 나타낸다. 과연 이럴수 있는가?
이것을 칠하면 어떤 무늬가 새겨질까?
이 다색무늬철감은 전국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파전람회-2019에서 많은 참관자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소장 김명한, 연구사 황성운을 비롯한 김일성 종합대학 지능철감제작소의 개발자들은 다양한 천연색채질감을 나타내고 보관이나 수송의 안정

성을 유지하며 시공속도와 편리성을 보장하여주는 다색무늬철감을 내놓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소장 김명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다색무늬철감에 리용되는 색감립자종류는 1만여가지가 넘는다. 그리고 한번의 분무시공으로 각이한 천연장식질감을 낼수 있다.》
3년전에 무어진 개발집단은 날로 발전하는 인민들의 문명수준에 맞는 여러가지 철감들을 개발, 생산하여 철감의 다양화, 다종화와 함께 조형화, 예술화, 기능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여왔다.
연구사 황성운의 말에 의하면 눈에 익고 손에 설다고 가장 일반적인 철감이라도 이론적으

로는 파악하고있었지만 그것을 제품으로 생산하려면 일정한 연구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한다.

짧은 기간에 일반적인 외장재와 내장재생산수준을 어느 정도 올려세운 그들은 세계철감발전추세에 맞는 철감들을 개발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기본은 국내원료에 의거한 철감을 생산하면서도 그 질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는것이였다.

성공에로의 길은 쉽게 마련되지 않았다.

하루에만도 수십차례의 실험이 진행되였다. 원료, 자재, 생산조건문제 등 제기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그들은 과학의 힘으로 하나하나 해결해나갔다.

개발자들은 생산되는 모든 마감건재들을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그들의 사색과 실천은 개발창조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나날 그들은 고내후성광택아크릴철감, 유기질수성내장재, 유기질수성외장재, 합성수지바닥철감, 합성수지방녹철감을 련이어 개발하였다.

만족을 모르는 제작소의 개발자들은 인체의 건강과 활동에 유리한 태양열흡수철감, 야광철감, 빛반사형열차폐철감, 나노항균철감, 음이온방출철감, 방화철감, 흡음철감, 빛반사철감과 같은 기능성철감개발에 달라붙어 끝끝내 성공하였다.

지금 지능철감제작소에서 개발한 10여종에 50여가지나 되는 철감들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상 식

선조들이 지켜온 조리원리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편찬된 《규합총서》, 《음식지미방》 등에는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조리원리들이 기록되어있다.
첫째는 음양조화의 조리원리이다. 요리에서 음양이라고 할 때 음은

집집승이나 산집승, 물고기와 같은 동물성재료를 말하며 양은 남새, 산나물, 바다나물과 같은 식물성재료를 말한다. 음양조화로 조리된 요리들은 감칠맛이 있고 소화도 잘되어 건강과 장수에 좋은 민족음식으로 전해

내려왔다.
둘째는 5미상생의 조리원리이다. 신맛, 매운맛, 쓴맛, 단맛, 짠맛을 가리켜 5미라고 한다. 짠맛과 신맛, 신맛과 쓴맛, 쓴맛과 단맛, 단맛과 매운맛, 매운맛과 짠맛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보충하면서 조선 요리의 고유하고 독특한 맛을 내는것이 바로 5미상생이다.

셋째는 5미상극의 조리원리이다.

5미상극이란 다섯가지 맛이 서로 억제하는 성질을 리용하여 고유한 맛을 내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쓴맛은 매운맛에, 매운맛은 신맛에 의하여 억제된다. 그리고 신맛은 쓴맛에서 억제되어 맞춤형 음식맛이 얻

어진다.

넷째는 이류보류의 조리원리이다.

이류보류란 류사한것을 가지고 류사한것을 보충한다는 뜻이다. 선조들은 머리가 쇠약해졌을 때 짐승의 골수, 폐, 심장, 간 등을 튼튼히 하기 위해 짐승의 허파, 염통, 간 등으로 요리를 만들어 먹었다.

다섯째로 소의소기의 조리원리이다.

소의소기란 좋은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롭다는 뜻이다. 지나친 쓴맛은 심장에, 매운맛은 폐에, 단맛은 취장에, 짠맛은 콩팥에, 신맛은 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조리원리들은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지혜와 재능의 산물로서 민족음식의 전통으로 오늘도 널리 리용되고있다.

* * *

사문석 가공제품들

사문석은 줄모양의 결정질 핵 부분이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면 서도 구름이 낀것과 같은 아름다운 무늬를 띠고있는 함수규산염 광물이다.

어두운 풀색, 풀빛검은색 등으로 되어있는 이 광물질은 쉽게 잘라 매끈하게 가공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보석이나 장식 품, 건재와 가구생산 등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락랑천원사문석가공공장에서 는 조국의 여러곳들에 매장되 어있는 이 사문석을 가공하여 여러가지 고급건재와 가구들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가공품들은 주로 갖가지 형태의 사문석란주와 란간, 타일 등의 건재류들이다.

이 건재류들은 건축물의 내 부의 시공과 장식에 리용되며 특히 건물내부의 장식효과를 높여주는데서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앞탁과 원탁, 가시대, 의자 등의 가구제품들 역시 다른 재 료의 제품들에 비하여 질이 굳 고 변질되지 않으며 색깔과 질 감이 천연그대로인것으로 하여 살림방과 부엌 등의 장식효과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공장이 제품생산을 시작한지 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높아가는 물질문화수준의 요구에 맞게 새 제품개발사업을 일관하게 견지 하여 최근에는 음이온이 발생되 게 하는 사문석제품들을 만들어 내고있다.

이곳 공장의 일군인 유대현 은 아직은 제품의 가지수로 보 나 질적측면에서 볼 때 첫걸음 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는 짧은 기간에 여러가지 가공기술을 습득한것을 비롯하여 제품생산 의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이든 자신심 을 가지고 달라붙는다면 못해 낼 일이 없다는 체험도 하게 되 었다, 이제는 그 어떤 제품이든 결심만 하면 자신있게 만들어 낼수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의 기술교류사업도 계획하고있 다고 말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반 향

인기있는 정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고매한 인품과 인민적품모는 인류의 심장을 틀어잡으며 끝없는 매혹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프랑스잡지 《르 뿌앙》은 다음과 같이 전하 였다.

북조선전문가들은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경축행사들에 참석하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는 확실히 독특한 매력과 친화력을 그대로 보여 주시였다고 일치하게 평가하였다. 평양에서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만나뵈은 유럽의 한 외교관 은 《분명 그이께서는 친화력을 지니고계시였다. 그의 모습은 참으로 위풍당당하시였다.》 라고 말하였다.

주체107(2018)년 3월 16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매력》이 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께서는 대단히 매력적이며 인기있는 정치가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계신다고 하면서 김정은최고령도자는 매우 부드러운분이시 며 빈말을 모르는 대단히 믿음이 가는분이시 라고 격찬하였다.

조선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만나뵈은 미국NBA(전국농구 협회) 이전 선수 데니스 로드맨은 귀국에 앞서 외신기자들앞에서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정직하고 비범한분이시라고 하면서 그이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며 그분의 나라는 그이를 좋아하고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이를 사랑하고있다, 정말 이지 그이는 존경할만 한분이시다고 자기 심정 을 토로하였다.

투철한 민족자존의 립장과 령활한 지략, 대 해같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력사적인 4.27판문 점수뇌회담과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을 성공에 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인상 에서 충격을 받은 서방언론들은 《과격적인 령도자》, 《대담하고 솔직한 형의 지도자》, 《행동이 거침없으시고 립기용변과 유모아감각 이 뛰어난신분》 등으로 그이의 인품을 널리 소개하였다.

이란의 일나통신은 지금 전문가들의 관심은 국제사회의 각광을 받으시는 조선의 최고령도자께로 쏠리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께서 많은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과 평론가들로 부터 《개성이 뚜렷한 정치가》,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 《강력하고 멋있는 령도자》로 칭송받고계시는데 대해 전하였으며 캄보쟈신문 《코메르 타임스》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실황중 계로 뵈올수 있었던 그이는 너무도 멋진 지도자 이시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당은 인터넷홈페 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든 품모가 다 특출하지 만 그중에서도 가장 매혹적인것은 한없이 고결 한 덕망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였을 때 조선인민은 최대의 상실감과 비통함에 몸부 립치며 곳곳에 꾸러진 조의식장들을 찾아 후한속 에서도 스스로 호상을 썼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의식장들에 몸눕이 는 장소를 꾸리고 더운 차와 꿀물 등을 보장해 주 도록 긴급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조의행사에 참 가한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 시였다.

날이 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계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민사랑의 품모에 대하여 더더욱 절감하고있다.

국제기구인 조선과의 친선협회는 세 상 에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지도자들은 많지만 김정은원수님 같은 인민의 아버이는 그 어디에 도 없다, 그이의 하루하루는 인민의 아들로서의 헌신의 나날이였고 그이의 로고는 인민의 행복으 로 이어진 하루하루였다고 격찬하였다.

미국, 남조선, 싱가포르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적품모를 전하는 기념주화 와 메달, 도서들이 발행되어 인류의 흠모열기를 더해주고있다.

세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인상 과 조선의 실상에 대해 알고싶어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는 속에 미국의 책방들에 그에 해답 을 주는 서적들이 지난해 그 전해에 비해 3배나 많이 들어왔으며 《위대한 계승자》 등 새로 출 판될 예정인 도서만도 10권이 넘는다고 한다.

본사기자

9. 18 사 변

나는 안도의 혁명조직들이 자기 궤도에 들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1931년 여름과 초가을 화룡, 연길, 왕청일대의 지방조직들에 나가 5. 30폭동 후 흩어졌던 대중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하였다.

내가 돈화를 활동거점으로 삼고 안도, 룡정, 화룡, 류수하, 대전자, 명월구 등지와 련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한창 전개해나가고있을 때 9. 18사변이 터졌다. 나는 그때 돈화근처의 한 농촌마을에서 공청열성자들과의 사업을 하고있었다.

9월 19일 이른아침에 진한장이 내가 머무르고있던 마을로 뛰어와 관동군이 봉천을 공격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전쟁이요! 왜놈들이 끝내 불집을 일구었소!》

그는 무거운 짐을 걸머진 사람처럼 신음소리를 숨가쁘게 내지르며 토방우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전쟁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은 진한장의 입에서 눈물겹도록 비장하게 울리었다.

오래전부터 이미 예견했던 사변이고 또 사변이 발발한 시기도 대체로 예상과 비슷이 맞아떨어졌지만 나는 조선민족과 수억만 중화민족이 당하게 될 재난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도 거대한 전환이 오리라는 예감때문에 가슴을 떠박지르는것 같은 충격을 견잡지 못하였다.

그후 우리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사태발전의 진상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1931년 9월 18일 밤 심양 북대영 서쪽 류조구에서 일본만철회사소유의 철도가 폭파되었다. 일제는 장학량군이 철도를 폭파하고 일본수비대를 공격했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걸고 불의의 침공을 개시하여 일거에 북대영을 점령하였으며 19일 아침에는 봉천비행장까지 차지하였다.

심양에 뒤이어 안동, 영구, 장춘, 봉성, 길림, 돈화와 같은 동북지방의 대도시들이 관동군과 압록강을 넘어온 조선주둔군에 의하여 련달아 점령되었다. 닷새도 못되는 사이에 일본침략군은 룡녕, 길림 두 성의 광대한 지역을 거의다 강점하였으며 전역을 계속 넓혀나가면서 금주 방향으로 육박하였다.

문자그대로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진상을 오도하여 중국측에 사건의 책임을 전가시켰지만 세상사람들은 누구도 그들이 내돌리는 여론을 믿지 않았다. 잔피가 많은 일제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후날 사건을 조작한 당사자들도 인정하였지만 만철회사소속의 철도를 폭파하고 9. 18사변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장본인은 관동군 특무기관이었다. 우리는 그 당시 출판물들에 글을 내어 류조구사건은 만주를 먹기 위한 일제의 모략이며 간계라고 폭로하였다.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앞두고 대기상태에 있던 1931년 9월 18일 아침 이 사건의 조작자의 한사람인 도히하라겐지대좌(심양특무기관장)가 갑자기 서울에 나타났다. 그는 조선주둔군사령부 고급참모 간다 마사다네를 찾아가서 신문기자들이 시끄러워 군에게 찾아왔다고 자기의 조선방문리유를 예둘러 설명하였다. 만주사변이 터지면 술한 기자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어 성화를 먹이겠는데 그 성화가 싫어서 미리 조선으로 도피해왔다는 소리였다.

같은 시각 일본항공본부장과다나베 조따로대장은 서울을 방문하여 조선주둔군사령관인 하야시 센쥬로대장과 함께 백운장이라는 큰 술집에서 연회를 차리고 휴식을 하였다고 한다. 만주사변과 같이 어마어마한 불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행차치고는 너무나도 안온하고 여유작작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이 력사기록을 읽게 되면 어찌서인지 조선전쟁이 발발하던 때에 트루먼이 별장에 가서 지내던 일을 상기하게 된다. 우리가 9. 18사변과 조선전쟁이라는 서로 다른 두개의 전쟁에서 일맥상통한 점을 찾아보게 되는것은 두 전쟁 다 선전포고없이 돌발적으로 개시되었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그 두 사변을 도발한 인간들의 면모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고유한 교활성과 파렴치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성과 지배주의적본성을 다갈

이 찾아보게 되기때문이다.

력사를 비반복적인 사건들의 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개개의 사건들사이에 존재하는 류사성과 공통적인 경향성을 우리는 또한 전혀 무시할수가 없는것이다.

일본이 9. 18사변과 같은 사변을 도발하여 만주를 먹어치우리라는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확고한 기정사실로 되어왔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장작림폭사사건을 조작했을 때에도 그것을 예감하였고 만보산사건이 발생하여 조중인민들사이에 험악한 대결상태가 빚어졌을 때에도 그것을 예감하였으며 《농학사》의 신분을 가지고 간첩활동에 종사하던 관동군 참모본부소속의 나가무라대위의 《실종》사건이 꾸며졌을 때에도 그것을 예감하였다.

나는 특히 만보산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만보산은 장춘에서 서북쪽으로 70~80리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자그마한 농촌마을이다. 만보산사건이란 바로 이 마을에서 수로문제를 둘러싸고 조선이주민들과 중국원주민들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말한다. 조선이주민들이 논을 풀려고 이통하물을 끌기 위한 물길을 뚫는데 그것이 그만 중국원주민들의 밭을 침범하게 되었다. 이통하를 막으면 장마철에 또한 강물이 범람할수 있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공사를 반대해나서게 되었다.

이런 때에 일본인들이 공사를 강행하도록 조선농민들을 사촉함으로써 분쟁은 확대되고 조선국내에까지 파급되어 인명

과 재산피해까지 내는 결과를 빚어냈다. 농촌에서 흔히 있을수 있는 지방적인 분쟁을 민족리간책략에 숨겨있게 리용한것이다.

만일 그때 일본사람들이 리간질을 하지 않았거나 조중농민들중에 선각자가 있어 리성적인 사고를 조금이라도 하였다라면 분쟁은 간단한 언쟁으로 그치고 그이상 확대되어 서로 마스고 두들겨패는것과 같은 양상으로는 발전하지 않았을것이다. 이 사건으로 하여 조중인민들사이에 는 더 큰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반감이 조성되었다.

그때 나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때문에 비슷한 불행을 겪고있는 두 나라 인민들이 무엇때문에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피투성이싸움을 해야 하는가, 항일이라는 대전제밑에 두 나라 민족이 손을 굳게 잡고 공동투쟁에 나서야 할 때 물길 하나를 놓고 서로 악에 받쳐 《골육상쟁》을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인가, 무엇때문에, 누구때문에 이런 참사가 빚어졌는가, 과연 이것이 누구한테 리롭고 누구한테 해로운 일인가 하고 거듭 생각하였다.

나에게는 문득 이 사건이 미리 꾸며진 연극으로, 박두해오고있는 어마어마한 사변의 전주곡으로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장춘령사관놈들이 농민들의 우발적인 충돌에 끼여들어 조선사람들의 리권을 《옹호》해나선것부터가 미심쩍었다. 《토지조사령》과같은 략탈적인 법령으로 조선의 농토들을 빼앗고 살인적인 농정을 실시

해온자들이 갑자기 보호자로 둔갑하여 우리 농민들을 《옹호》해나선것은 사실상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수 있는 하나의 정치만화였다. 장춘의 《경성일보》지국이 본사에 서둘러 만보산의 분쟁을 통지한 일도 그렇고 국내에서 신문회의를 찍어 조급하게 배포한것도 모두 수상하게 여겨졌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을 리간시키기 위하여 일제의 영악한 두뇌들이 지방적인 자그마한 분쟁을 민첩하게 악용하여 엄청난 모략을 꾸렸는데 그것이 성공한것이 아닐가. 그렇다면 놈들한테는 무엇때문에 그런 모략이 필요했는가.

우리가 간도오지에서 혁명조직들을 재정비하고있는 사이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분명 무엇인가를 다급하게 준비하고있었다.

만보산사건의 여파가 채 가셔지지도 않은 그해 여름의 나가무라대위 《실종》사건은 중일관계를 전쟁접경으로 이끌어 나갔다. 이 사건과 때를 같이 하여 일본본토에서는 련일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있었다. 도교의 청년장교들이 야스구니진자에 모여 나가무라의 위령제를 지내고 자기들의 피를 뽑아 일장기를 그렸는가 하면 그것을 신사사두에 높이 띄워놓고 국민들의 전쟁열을 고취시키었다. 형형색색의 만주관계단체들은 만몽문제 각파련합대회라는것을 열고 실력행사로써만 만몽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귀가 아프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사회주의위업실현의 진로를 명시한 강령

오늘 조국인민들은 자기의 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야말로 과학적이며 우월한 사회제도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있다.

지난 세기 90년대 초엽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났다. 제국주의세력은 이를 기회로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어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 필승불패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명시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우월성, 그 불패성을 힘있게 론증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불피코 계급적대립과 불평등, 착취와 압박을 동반하게 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으며 오직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참답게 실현할수 있는것만큼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 넘어가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필연적과정이라는것을 론증하시였다.

이것은 력사발전방향을 되돌려세우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을 과학적으로 밝힌 력사적공적이였으며 유물사관에 기초한 사회주의리론의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리론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식화한 사상리론적업적으로 된다.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은 사람에 대한,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견해와 관점과 립장에 기초한 사회주의라는데 있다는것을 론증하시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며 모든 문제를 사람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풀어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

할을 다하게 하며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는 사회주의로 된다.

그이께서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 독창적인 사상은 인류에게 사회주의의 참다운 리상을 안겨주고 주체의 사회주의리론발전에 기여한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 사회주의우월성뿐아니라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방도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리론이 완성된 리론으로 되자면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 우월성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까지 다 밝혀져야 한다.

그이께서 로작에서 밝히신바와 같이 사람의 본성에 맞는 우월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방도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는 인민대중이 정치의 대상으로부터 정치의 주인이 되고 계급적대립이 청산되어 온 사회가 하나의 정치적생명체로 전환된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의 본질을 이룬다.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야말로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키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정치방식으로 된다.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참다운 인덕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에 대한 사랑을 지닌 참다운 지도자를 내세울데 대한 문제, 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할데 대한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로작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사상과 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전면적으로 완성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가장 정확한 지도적 지침을 마련한 사회주의의 불멸의 총서이며 자주성을 위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현실을 낳는다. 이 로작이 발표된 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된 놀라운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

반 향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조선

지금 국제사회는 그 어떤 정치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자주 의 침로를 따라 곧바로 전진하는 조국의 자랑찬 모습에 찬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확언하고있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백두산위인칭송 국제축전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1부위원장 헤쥬스 안토니오 까를로스 에르난데스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인사들은 《절세위인들의 사상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된 아메리카지역 인터넷토론회에서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의 현실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현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원수께서는 김일성 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 바라시던대로 조선을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로 변함없이 이끄신다, 주체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 김정은원수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 것이며 조선인민은 가까운 앞날에 룡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라고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조국을 방문한 여러 나라 인 사들도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자기 힘으로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에서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자기들의 소감들을 펴력하였다. 아프리카민주련합-기네민주당 총비서대리 오예 베아보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을 방문하여 애국심이 강한 이 나라 인민에 대해 알게 되었다.

사회주의보루인 조선은 자강력에 기초하여 부강발전을 이룩해나가는 나라이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만리마속도로 전진하는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많은것을 느꼈다.

아프리카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며 자주적인민으로서 자체의 힘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는것이 우리가 바라는것이다.

조선이 민주주의가 없고 폐쇄된 나라라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거짓선전이다.

조선의 현실을 알려거든 이 나라에 한번 가볼것을 권고한다.

말리아프리카민주독립단결당 위원장 우마르 마리코는 언론들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발전모습을 많이 보아왔지만 조선처럼 문명하고 참신한 나라는 이번이 처음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은 전체 인민이 최고령도자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는 나라이다.

이 나라에는 단 한명의 실업자도 없다.

우리도 조선처럼 제힘으로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벨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조 성원들인 스토얀 도세브, 마리안 네이체브는 김정은위원장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졌다고 하면서 조선방문기간에 받은 인상은 평양이 세계적인 도시로 나날이 변모되어 가는것이다, 초고층살림집들이 늘어서고 록화가 잘된 거리와 깨끗한 공원들, 활기에 넘쳐있는 주민들의 모습 또한 인상적이였다고 말하였다.

조선에서의 국가운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평양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은 항일무장투쟁과 자주적인 국가창건, 조국해방전쟁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로 이끄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혁명력사와 거대한 업적들과 결부되어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선이야말로 불것이 많고 배울것이 많은 려행해볼만 한 나라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김지성

회주의발전의 근본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위업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시였기때문이다.

조국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는 과학이라는 신

념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따라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향하여 질풍노도쳐나갈것이다.

인민경제대학 교수 박사 황이철

교육조건개선에 힘을 넣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구역안의 일군들과 교원들의 집체적토론이 거듭되었으며 이 과정에 현대화목표가 높이 세워지고 자체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대책안들도 나오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먼저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하며 교육시설과 실험실습기재들을 현대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일신한 시안의 교육단위들에 대한 일군들과 교원들의 참관사업이 조직되었으며 학교의 실정에 맞는 단계별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졌다.

교원들은 학교의 주인인 우리가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며 분발해나섰고 학부모들도 우리 자식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는 일이라고 하면서 저지마다 도와나섰다.

동문사진기술교류소를 비롯한 구역안의 후원단체들도 학교를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모두의 진정어린 노력에 의해 학교는 짧은 기간에 교육시설과 실험실습기재들을 현대화하고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리었으며 교수와 실험실습전과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구내망체계를 완비해놓았다.

학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수영장을 개건하고 인공잔디운

동장을 새로 꾸리는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교육조건과 환경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게 일신되니 교육수준과 학생들의 실력은 눈에 띄게 높아지게 되었다.

교원들은 현대화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정보화를 다그쳐 교수에 반영하기 위한 자질향상사업에 적극 달라붙었다.

방대한 량의 교육관련자료들로 자료기지를 구축하였으며 여러 교육용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실용성있는 교수방법도 창안하게 되었다.

이 나날에 학교에서는 중앙, 시, 구역모범교수자대렬이 늘어났으며 적지 않은 교원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구역적인 교수경연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원들의 자질은 학생들의 실력에 그대로 반영



평양시의 대동강구역 동문고급중학교는 구역적인 본보기학교로 불리우고있다. 교원들의 교수지도능력이 높을뿐아니라 학생들의 학과실력이 높은것으로 알려진 학교는 최근년간 교육조건과 환경도 일신하였다.

학교는 지난 시기 년차별계획에 따라 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갱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교육의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는 시대적요구에 비추어 볼 때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었다.

학교에서는 현실발전에 맞게 교육조건과





김명월

어둠속을 헤매이는 사람에게 한줄기의 빛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것이나 다름없을것이다. 그렇듯 광명을 잃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삶의 희망을 안겨주는 빛이 있다면...

얼마전 우리가 황해북도인민병원 안과 책임의사인 김명월을 만났을 때였다.

《전 보건일군으로서 응당 할 일을 했습니다.》

지난 30여년동안 수천명의 환자들을 치료하여 광명을 안겨준 그였지만 자기를 소개하는것만은 응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에게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한듯 수술실로 걸음을 다투었다.

우리가 어느 한 방에서 그를 기다리고있는데 환자복을 입은 낮모를 한 중년녀인이 다가왔다.

마음속의 밝은 《달》

그 녀인은 우리가 기자라는것을 알고 명월선생에 대해 꼭 하고싶은 말이 있다며 이렇게 서두를 땀다.

《처음 저는 앞으로 눈을 영영 보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앞길에 캄캄했습니다. 절망상태에 빠졌던 제가 이렇게 명월선생의 의술에 의해 다시 광명을 찾고보니 마치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달빛을 받은 심정입니다.》

황해북도 은파군에서 사는 그 환자는 난치성질병으로 인정되고있는 비루스성각막염을 경과해오다가 40여일전부터 도인민병원에 입원하여 명월선생에 의해 완치된 환자였다.

당시 환자는 각막천공면이 넓어 봉합할수가 없었다. 며칠동안 여러가지 치료방법들을 적용해보았으나 병세는 점점 더 심해졌다. 방도는 오직 하나 환자의 체질적특이성으로 하여 피형이 같은 사람의 결막을 떼내 동종결막이식수술을 진행하는것이였다.

그때 김명월은 스스로없이 자기 결막을 환자에게 이식해주었다. 환자는 물론이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있는 의사들도 이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있었다.

수술후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자기뿐만이 아닌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울이는 김명월의 뜨거운 정성을 직접 보고 느끼였다.

예로부터 사람이 천냥이면 눈은 팔백냥이라는 말이 전해져왔다.

그 말속에도 있듯이 눈을 잃으면 인생의 거의 모든것을 잃는것이나 다름없는것이기때문에 광명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주는것을 더없는 인생의 기쁨으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빛내이는 성스러운 사업으로 간주하고있는 김명월이였다.

우리는 병원의 원장 리성철에게서 김명월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였다.

57년전 함경북도 청진시의 평범한 보건일군가정에서 태어나 평양의학대학 립상학부를 졸업한 후 한생의 배우자도 보건일군을 선택한 그였다.

김명월은 인간에 대한 사랑도,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도 보건일군의 높은 의술에 의해서만 빛날수 있다는것을 그 누구보다 자각하고 실력제고에 열정을 바치였다. 낮에는 환자치료 사업을 하고 밤에는 늦도록 의

였다.

박철교장은 《우리가 해놓은 일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의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계속 분발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책임이며 본분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학도서들을 파고들었다. 더우기 눈수술은 아차 실수가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으므로 그는 수술이 제기될 때마다 수술수기를 익히기 위해 수백번의 반복동작을 하기도 하였다.

그 나날 남편 현성린은 안해 김명월의 사업과 생활을 말없이 도와준 믿음직한 동업자였다. 김명월이 환자에게 각막을 떼줄 때에도 말없이 리해해주었고 환자들에게 맛좋은 보양음식들을 만들어주느라 눈코뜰새없어할 때면 늘 곁에서 일손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그가 안과분야에서 실명률과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질병인 백내장에 대한 치료에 인공수정체이식수술을 도입하기 위해 병원에서 살다싶이 하며 치료사업을 벌릴 때에도 그 누구보

다 더 힘과 고무를 안겨준 남편이였다.

이렇게 그는 량안실명으로 맹인생활을 하던 10여명의 전쟁로병들을 수술하여 그들이 주체103(2014)년 7월에 진행된 전국로병대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뵈옵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난 30여년간 실명환자 9 200여명(그중 량안실명환자 520여명)을 완치시키고 외래환자 12만여명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였다.

김명월은 《안과수술용건전지소작기》를 비롯하여 발명권, 창의고안, 과학기술공적증 20건을 받아 나라의 의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는 이러한 공적으로 하여

지난해 9월 중앙사회주의애국공로자, 올해에는 만리마시대의 전형으로 되였다.

그는 환자들로부터 고마움의 인사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한다.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무상치료를 받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 아래서 눈을 잃고 가슴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자기의 본분을 다했을뿐입니다.》

우리는 취재수첩을 덮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달빛은 언제나 해빛을 받아 그토록 밝은 법이다.

글 본사기자 러 해
사진 본사기자 임철병

환자들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남편과 진지한 사업토의를 진행한다.



8도는 조선봉건왕조시기 전국 8개의 가장 큰 지방행정단위이다.

여기에는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속한다.

도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본다면 그것은 해당 도안의 가장 큰 두개의 고을이름의 첫자를 따서 붙인것이다. 즉 평안도는 평양의 《평》자와 안주의 《안》자, 함경도는 함주의 《함》과 경성의 《경》, 황해도는 황주의 《황》과 해주의 《해》,

상 식

8도와 13도

강원도는 강릉의 《강》과 원주의 《원》, 충청도는 충주의 《충》과 청주의 《청》, 전라도는 전주의 《전》과 라주의 《라》, 경상도는 경주의 《경》과 상주의 《상》을 각각 따서 붙이였다.

경기는 도들과 다른 말하자면 직

할도였는데 7개의 도와 경기를 통털어 8도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전지역을 가리킬 때 흔히 8도라고 부르게 되였다.

8도는 우리 나라에서 근대화를 지향한 개혁이었던 갑오(1894년)개혁후인 1896년에 와서 13도로 바뀌였다. 즉 평안도, 함경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5개의 도가 각각 남도와 북도로 갈라지고 경기 역시 도로 됨으로써 13도로 되였다.

* * *



본분을 다해가는 사람들

평양의학대학병원 소아집중치료실은 다른 치료과들과는 달리 호흡, 맥박, 혈압 등 생명지표가 거의나 립계점에 이른 최종증의 환자들을 대상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의사들이 높은 의술을 지니고 모든 치료를 보다 과학적이면서도 신속정확히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평양의학대학 박사원을 졸업한 쟁쟁한 실력가들로 꾸려진 실에서는 치료성과를 위해 실력제고에 큰 힘을 넣고있다.

부단히 최신자료들을 연구하고 소아과학부문에서 이룩되는 성과들을 치료에 도입하고있으며 먼거리의료봉사실에서 진행하는 강의와 의사협의회에 자주 참가하여 경험을 교환하기도 한다.

또한 최종증환자들에 한해서는 담당의사는 물론 실의 모든 의사들이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선진적인 치료방법들이 도입되고있다.

이 과정에 많은 의사들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배합할줄 아는 명의사들로 자라났으며 환자들 이 먼저 찾는 선생으로 되고있다.

높은 실력을 소유한 집중치료실의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어머니다운 따뜻하고도 다심한 정을 쏟아붓고있다.

얼마전 실로는 태어난지 7달밖에 안되는 오광

성어린이가 실려왔다.

자기 달수에 비하여 키도 몸무게도 훨씬 모자라는 저체중아인 그 어린이는 심한 영양장애에 고열과 호흡곤란, 설사증까지 합병되어 의식은 혼미상태였고 생명지표는 위험계선이였다.

리경호 집중치료실 실장은 의사협의회를 열고 즉시 문혜정선생을 담당의사로 하는 집중치료조를 무었다.

김승국, 리광일선생을 비롯한 많은 의사들은 밤을 새워가며 환자소생을 도와나섰다.

근 5차에 걸치는 의사협의회와 기구 및 종합실험검사가 수차례 진행되였고 생명지표를 정상으로 올리기 위한 긴장한 치료끝에 환자는 24시간만에 의식을 차리고 엄마를 겨우 알아보았다.

담당의사인 문혜정선생은 물론 량정희선생, 고화, 김수향간호원들은 저저마다 집에서 오광성어린이에게 좋다는 보약들로 영양죽을 써왔으며 김경철선생을 비롯한 많은 의사들이 여러가지 치료경험을 도입하였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하루이틀이 다르게 환자의 반응상태는 좋아졌다.

마침내 오광성어린이는 20여일만에 회복되였으며 별쭙별쭙 웃으며 퇴원하게 되였다.

오광성어린이뿐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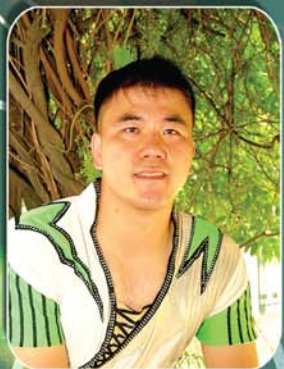


비루스성폐염으로 인해 죽어가던 3살 난 백 위은어린이, 약물중독으로 의식을 잃었던 최송주어린이, 당뇨병성혼수로 쓰러진 조유경소녀를 비롯한 많은 환자들 이 소아집중치료실 의사, 간호원들에 의해 생을 되찾았다. 하루에도 소아집중치료실 의사들을 소개해달

라고 수많은 감사편지들이 병원으로 날아온다. 그때마다 리경호실장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우리는 본분을 다했을뿐입니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김 평





우승을 이어가는 교예배우들

세계교예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조국의 교예를 두고 《세계최상의 교예》, 《세계패권을 찬 교예》라고 평하고있다.

실지 조국의 교예배우들이 창작, 창조한 많은 교예작품들이 국제적으로 진행된 여러 교예축전들에서 특별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체력교예 《비행가들》은 창작된지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세계패권을 놓지 않고있다. 체력교예 《비행가들》은 그 어느 나라도 모방할수 없는 작품, 국제교예계가 가장 성공적인것으로 인정하는 작품으로까지 되었다.

지난 3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제12차 이웬스크국제교예축전에서 체력교예 《비행가들》은 관중들의 대절찬을 받았으며 최고상인 금상을 수여받았다.

이미 오래전에 창작된 작품은 조국인민의 투쟁정신과 기상을 교예무대의 지상과 공중에서 박력있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첫선을 보이자마자 세계교예계를 흔들어놓았다.

제22차 몽뎬까를로국제교예축전에서 금상을 수여받은 이 작품은 그후 여러 국제교예축전에서도 최고상을 련이어 수여받았

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들에서 공연되어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그 과정에 배우들은 여러번 바뀌었지만 작품은 보다 세련되었다.

무릇 명예는 지니기도 힘들지만 그것을 빛내이기는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사실 새로 이 작품을 맡은 국립교예단의 배우들은 대부분이 교예학원을 졸업한 신인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제12차 이웬스크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집중적인 훈련을 진행한 기일은 불과 20일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로부터 일부



사람들은 기존의 작품을 그대로 가져가도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때 창작가, 배우들의 생각은 깊었다.

물론 기존작품을 그대로 완성하여 축전무대에 올려도 우승은 할수 있었다. 그러나 만났을 헤치며 기적을 창조해가는 조국의 벽찬 숨결, 비상이 높아가는 조국의 위상을 담지 못한 작품을 가지고간다는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선배들이 창조한 작품을 보다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하는것은 후배로서 그들이 지닌 응당한 본분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어 그들은 작품경신을 위한 사업에 집체적지혜를 합쳐나갔다.

그 과정에 난도높은 기교동작들과 대담한 안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작품에 출연하는 녀배우 조은향은 옷단에서 3회전을 수행하고 중간단에서 2회전을 수행

한 다음 바닥에 내려서던 중전과는 달리 중간단에서 3회전을 수행하겠다고 결의해나섰다. 결국 6회전을 수행하여야 했다.

목표를 내세운 그들은 지체없이 훈련에 열중하였다. 실수가 뒤따랐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분발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당시 축전무대에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음악선율이 울려퍼지는 속에 조국의 교예배우들의 기교동작이 치차처럼 맞물려 펼쳐지자 관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바닥그네에서 출발한 유진성배우가 20m의 거리를 비행하여 공중 10m 높이에 드리운 룬을 꿰고 옷단의 배우와 손을 맞잡았을 때 그리고 조성남배우가 같은 거리를 비행하여 그 공중 10m 높이에서 도립선 배우우를 눈가리우고 날아올랐을 때 극장안은 온통 환호성으로 차고

넘쳤다.

작품이 어찌나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던지 심사원들도 판례를 깨고 일어나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었다. 교예전문가들과 관중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공화국의 발전면모를 이 작품을 통하여 잘 알게 되었다, 젊고 재능있는 교예배우들이 있어 조선의 교예는 앞으로 세계교예계를 놀래우는 기적을 계속 창조할것이라고 저저마다 이야기하였다. 다른 나라의 창작가들과 배우들까지도 출연자들을 찾아와 엄지손가락을 흔들며 축하해주었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세대를 이어 오늘도 우승을 이어가는 조국의 교예배우들,

그들은 앞으로도 조국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갈것이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 평

첫 걸음

지난 기간 우수한 체육선수후비들을 적지 않게 키워낸 평양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에서 또다시 전망성있는 레스링선수들을 배출하였다.

그들은 지난 7월에 진행된 2019년 아시아청소년레스링선수권대회 여자레스링경기에서 우승을 한 장진향, 김진아학생들이다.

장진향은 43kg급경기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쟁취하였고 김진아는 40kg급경기에서 3등을 하였다.

경기들에서 진향은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완강한 방어와 재치있는 반공격기술로 맞다드는 선수들을 모두 이겼다.

특히 우승후보자로 지목되고있던 일본선수와 그의 결승경기는 시작부터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상대의 공격을 좌절시키면서 약점을 제때에 간파한 진향은 먼저 다리잡기로 점수를 올리고 런속 몸통굴리기를 성공시켜 1회전부터 4 : 0의 점수로 앞서나갔다. 2회전에서 그는 부단한 공격과 완강한 방어로 일본선수의 공격을 물리치고 우승의 시상대에 오르게 되었다.

여자레스링 40kg급경기에 참가한 김진아선수도 경기를 잘 운영하여 준결승에서 일본선수를 이기고 3위를 쟁취하였다.

이번 성과는 그들에게 있어서 국제레스링계로 향한 첫걸음이다.

한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며 이악하게 기술을 익혀가는 그들을 두고 교원들은 쌍두마차라고 부른다. 학습에서나 훈련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끌면서 남다른 우정을 이어온 그들이다.

현준혁지도교원은 《진향이와 진아가 국제경기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은 레스링선수로서의 적성체질을 가진데도 있지만 보다는 반드시 레스링으로써 성공하겠다는 정신적각오가 높은데 있다고 본다.》라고 말하였다.

지도교원이 남포시 천리마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레스링을 배우고있는 진향이를 알게 된것은 전국청소년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때였다.



당시 많은 지도교원들이 경기에서 순위권에 든 선수들부터 선발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현준혁지도교원의 눈길은 한 소녀의 모습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자기보다 체격이 큰 상대도 꺼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나 점수를 올려보려고 이악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진향이 그 시야에 안겨들었다.

결국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그의 기질이 지도교원의 눈길을 끌었던것이다.

이렇게 되어 진향이는 평양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에서 자기의 기술을 연마해나갔으며 그 나날에 선레스링과 앓은레스링에서 실지 써먹을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을 높은 수준에서 소유할수 있었다.

그의 기술발전은 주체105(201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경기들에서 런이어 1위를 쟁취하는데서 표현되었으며 국제경기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함께 훈련을 한 김진아는 이번 경기에서 아쉽게도 3위를 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훈련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경기를 운영했기때문이라고 지도교원은 말하였다. 그러면서 팔을 상하지 않았더라면 1등은 문제없었을것이라며 앞으로의 경기성과에 대해 기대를 표시하였다.

우승의 첫걸음을 뗀 두 소녀, 이들은 지금 결승전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꼭 세계패권을 쥐여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것이라는 하나의 생각으로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경





광천의 효과만이 아니었다

평안남도 성천군에는 온천으로 유명한 평양의 학대학병원 성천온정료양소가 있다.

이곳의 온천은 알카리성온천이며 온도는 45.5℃로서 사람이 온천욕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라돈성분이 기본인 온천은 그 성분이 다른 온천들에 비해 높아 신경계통의 난치성질병과 위장병, 부인병 등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다.

물리치료를 배합하여 치료효과를 높인다.



뿐만아니라 이곳에서는 약수까지 나와 사람들이 룡양치료를 하기에는 이상적인 곳으로 되고 있다.

료양소에서 병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호전률은 해마다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광천의 효과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는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얼마전 담

온탕욕을 하는 룡양생들



가에 실린채 이곳 룡양소에 왔던 평안남도 순천시 리철순주민의 치료과정을 놓고보아도 알수 있었다.

초기 환자의 상태는 심한 병으로 두다리가 완전히 구부러지고 척추 역시 몹시 변형되어 운신조차 제대로 할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료양소의 의료일군들은 수십차례의 협의회를 가지였고 치료대책을 세웠으며 매일과 같이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집중치료를 벌리었다.

사실 이 온천물은 알카리성이 높아 단위당 시간에 진행되는 환자치료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치료로 많은 시간을 욕탕에서 보내야 하는 의사들에

수법치료도 진행한다.



완치된 기쁨을 나눈다.



게는 육체적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어 역효과까지 주고있었다. 하지만 의료일군들은 건강과 활력에 넘친 환자의 웃음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치료사업을 인내성있게 벌려 보름만에 환자의 두다리가 완전히 펴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변형된 척추도 바로잡아 그가 걸음을 뻐수 있게 하였다.

그 나날 귀한 보약재를 얻기 위해 먼길을 걸기도 하였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에는 성의껏 마련한 영양식품으로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한 이곳 의료일군들이었다. 그러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았다.

지극한 인간애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의료일군들에게만 있는것이 아니었다.

료양소에서 환자들 호상간에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는 진정 역시 가슴뜨거운것이였다.

그에 대해 평양시에서 온 최정혁은 모두가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지만 자기들의 아픔을 내색하지 않고 서로가 위해주고 돌봐주는 미풍이 호실마다 차넘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남달리 해산물을 좋아하는 자기가 여담삼아 어릴적에 아버지가 쑤어준 섭죽을 맛있게 먹던 이야기를 호실성원들에게 한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같은 호실성원들이 섭죽을 들고 왔고, 바다가에서 멀리 떨어진 산촌에서 섭죽을 먹



친딸과도 같은 며느리가 있어

누구나 기다려마지 않는 11월 16일은 조국에서 어머니날이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어느 가정에서나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축하속에 기쁨의 무아경에 잠기곤 한다.

얼마전 우리는 그 행복상을 지면에 담고싶어 평

어머니의 행복

양시 중구역 오탄동에서 사는 오련희녀인의 가정을 찾았다.

오련희, 그는 아들, 며느리, 두 딸, 두 사위, 손자손녀들, 모두 10명의 대식구를 거느린 칠순의 로인이다.

머지않아 온 식구가 모여 흥성거릴 명절을 그려보며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난 일본에서는 자식이 셋이면 집안이 망한다고 일러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다섯 자식을 키우느라 일본반동들의 천대속에서 껌장사, 김밥장사... 별의별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부러워한 나를 위해 풍금 건반을 그린 판중이를 안겨주며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것은 어머니들의 일반 심리이다.

이역의 부두에서 자기의 장래를 위해 조국으로 등을 떠밀었다는 어머니를 추억하며 그는 회억의 끈을 슬며시 풀어놓았다.

그의 한생을 거슬러보면 그는 22살에 조국의 품에 안겨 희망대로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인민대학습당과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30년가까이 번역원, 기술일군으로 사업하였다.

그 나날 그는 최신과학기술성공들이 수록된 도서들을 천수백여권이나 번역하였고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스스로 찾아 해결하였다. 그는 언제나 나

였다.

정말이지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료양소에 넘치는 사람들의 진정의 목소리가 어찌 광천의 치료효과가 가져다주는것이라고만 하겠는가.

인간을 귀중히 여기는 무상치료제의 혜택아래 누구나 받아안은 조국에 대한 고마움의 감정이 아니겠는지.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라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라면 그 어떤 명이나 표창도 바람이 없이 자기의 과제로 맡아안았다. 20년전에는 공훈과학자인 남편(김치영)과 함께 자체로 창안제작한 100대의 수자식주파수계를 만들어 지방의 중소형발전소들에 보내주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짬만 있으면 기술서적들을 탐독하느라 밥을 태워 자식들의 《비판》을 받은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는것이 그의 웃음속에 담겨진 일화이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로 개척해나가야 하는 그 어려운 속에서 그는 언제 한번 자기의 모습을 흐리지 않았다. 모두가 한가정, 한식솔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며 위훈으로 생을 빛내여가는 조국의 정겨운 현실이 그로 하여금 삶의 지향을 뚜렷하게 해주었던것이다. 가정을 이루고 국가로부터 새 집을 받았을 때에는 너도나도 혈육이 되어 축복해주던 부서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중병에 걸려 운신을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토록 아낌없이 정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부어주던 평양의학대학병원의 의료일군들과 이웃들... 이들모두가 안겨사는 조국의 모습은 그대로 그의 눈가에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며 이역의 부두에서 오래도록 손저어 바래주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안겨졌다.

바로 그 고마운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길에 삶의 보람이 있고 인간의 의리가 있음을 절감한 그였기에 그는 자신뿐만아니라 자식들도 나라에서 제일 관심하는 과학의 세계에 내세웠다.

오늘날 세 자식과 함께 며느리, 사위들까지 모두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과학연구부에서 학위학직소유자가 되었으며 기술부국장, 교원, 연구사 등으로 일터마다에서 존경을 받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시종 가서질 줄 모르는

그의 미소속에서 어머니의 행복, 이 말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돈이 행복을 낳는 이역의 사회와는 달리 우리 조국에서는 나라를 위해 참되게 사는데 누구나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부모의 뒤를 이어 애국의 실적을 더 높이 쌓아간다면 이 어머니는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글 본사기자 흥정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어머니, 할머니에게 드릴 마음을 담아

집안에 사랑과 정이 넘친다.



게 될줄 생각 못했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러한 이야기는 연광희로인에게서도 들을수 있었다.

로인은 자기는 근 20년간 양로원생활을 하며 나라에 보탬은커녕 집밖에 되지 않은 존재이지만 그런 자기를 극진히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의료일군들과 료양생들의 진정에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로인은 덕과 정이 어디에 가나 넘쳐나고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있어 자기도 꼭 지평이를 버리고 가게 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

로정약수로 이름난 고장

《내 고향은 초정약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

지난 8월말 재중동포들과 함께 칠보산관광길에 올랐던 우리는 황해남도 은천군에서 태어났다는 김대건동포를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기자선생들은 초정약수를 맛보셨소?》라고 물어보더니 느닷없이 고향이야기를 펼쳐놓는 것이었다.

어릴적에 동무들과 약수터결에서 숨박꼭질이란 하면서 놀다가는 약수를 마시곤 하였다는 동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천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여 얼마전 우리는 김대건동포의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해 초정약수가 난다는 은천군으로 취재차를 달리였다.

평양에서 사리원으로, 사리원에서 재령군, 안악군을 거쳐 은천군에 다달은 우리는 읍거리에서 차를 멈추었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군의 한 일군은 반가와하며 《초정약수야말로 우리 은천군의 자랑이지요. 한데 평양에서 남포쪽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은천군 북두리쪽으로 넘어와 초정리로 가는 것이 더 빨랐을 것인데...》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점심시간도 다 되었는데 이왕 온 김에 시원하게 국수나 들고 초정약수터로 함께 나가보자고 하였다.

우리는 그의 말에 흔연히 수긍하였다. 읍거리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가로수를 심었고 지방의 특성에 맞게 소층짜리 살림집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군일군의 말에 의하면 군에서는 최근 몇해어간에 문화회관, 체육관, 려관, 은덕원(편의봉사시설) 등 여러 건물들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개건하였다고 하였다.

몇년전 은천군인민들은 읍지구를 변모시킬 높은 목표를 세웠다.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창조할 때 마련된다는 자각을 안



국가천연기념물인 초정약수를 판매한다.

은덕원의 온천물놀이장



은천려관



은천군체육관에서



고 그들은 읍지구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군의 특성과 인민들의 지향과 감정에 맞는 건축 설계안들이 도면우에 그려졌다.

이어 로력, 건설자재들이 따라섰고 없거나 부족한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생산기지도 꾸리고 활성화해나갔다.

우리는 군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 꾸린 은천려관 식당에서 시원한 메밀랭면을 먹고 은덕원으로 향하였다.

은덕원은 한여름에도 더운물로 목욕도 하고 물놀이도 할수 있게 꾸려져있었다.

알고보니 온천물을 끌어들이어 욕치료까지 한다는 것이었다.

은천군에 유명한 초정약수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았어도 치료에 효과가 좋은 온천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와서야 알게 된 우리여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고향의 모든것을 사랑하고 빛내여가려는 이 고장 사람들의 마음이 깃든 은덕원의 여기저기를 사진기에 담은 우리는 청량음료점에서 시원한 초정약수도 마시였다.

물놀이와 욕치료를 마치고 나온 손님들에게 시원하고 평한 초정약수를 권하는 봉사자들의 얼굴에도 기쁨이 넘치고있었다.

초정약수터는 은천읍에서 북동쪽으로 약 45리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하고있었다.

약수터는 논밭머리에 자리잡고있었는데 이곳을 지나가는 길손들의 휴식터로도 리용되고있었다.

군일군은 초정약수는 수소탄산-칼슘-나트륨형의 유리탄산규토천으로서 1580년대에 발견되어

지금까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널리 리용되어 국가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었다고 말하였다.

이 약수는 위염, 만성간염, 관절염에 특효가 있으며 만성소대장염, 만성담낭염, 만성방광염, 당뇨병 등의 치료에 리용되고있었다.

약수터가까이에는 현대적인 약수공장이 새로 건설되고있었다.

이제 이 약수공장이 완공되면 초정약수를 리용한 사이다, 맥주생산이 활성화되게 될 것이며 초정약수는 은천군의 특산물로 전국에 더 잘 알려지게 될것이라는 군일군의 목소리에는 고향에 대한 남다른 자랑이 깔려있었다.

초정약수로 이름난 은천군의 래일이 자기의것을 사랑하는 이곳 인민들의 마음에 떠받들려 더 아름답게 다가오고있음을 우리는 믿어의심치 않았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임철병



은천군 덕천협동농장 10일유치원 자연관찰실에서

개성적인 연기로 인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

국립연극단 기량과 과장 서건배우라면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하지만 텔레비전연속소설 《석개울의 새봄》에서 택근이라고 하면 사람들 누구나 안다.

한마을처녀인 국실이와 남다른 정을 꽃피우며 그의 아버지인 고집불통 마령감을 개조하는데 이 모저모로 원심을 쓰는 택근이, 의협심이 강하면서도 노래 많고 웃음 많은 익살꾼총각, 몸에서 언제나 땀과리를 때놓을 줄 모르는 택근이...

그만큼 택근이의 형상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또렷이 새겨져있다.

시청자들로부터 친근한 별호로 불리우는 택근이.

그는 지난 시기 텔레비전극 《좌우명》과 《갈매기》를 비롯한 적지 않은 작품들에서 즐겁고도 명량한 역형상으로 작품의 양상을 밝게 해주는 촉매적인 자기 특유의 연기술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의 배우적자질은 결코 화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혁명연극 《어머님의 당부》,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 《백두산의 녀동지》, 김일성상관작품 경희극 《산울림》을 비롯한 장막극들과 수십편에 달하는 무대소품들에 출연해서도 관람자들에게 독특한 인상을 남겼다.

관중들은 그가 나올 때면 웃음주머니를 터치곤 하였다.

연극 《혈맥》에 출연하여
부기사장역을 수행하고있다.



조국에서 진행되고있는 연극 《혈맥》에서 부기사장의 역을 맡은 그는 자기의 기량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그에게는 확실히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하지만 그 재능도 어떻게 가꾸는가에 달려있다.

원래 서건배우의 가정은 극세계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있다.

일본에서 문학과 무용을 하다가 귀국한 그의 부모들은 조국에 와서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웠다.

그의 아버지는 어느 한 지방예술단체에서 연출가로 있으면서 연극 《아침노을》을 창조완성하여 전국연극축전에서 1등으로 당선시켰으며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는 영예를 지니었다.

어머니의 손목에 이끌려 조국에 온 서건배우는 어릴적부터 이런 남다른 자부를 안고 조국이 놓아준 배움의 총계를 따라 자기의 재능을 체계적으로 자라왔다.

평양연극영화대학시절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을 자자구구 학습하며 배우에게 있어서 연기기술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느끼었으며 극배우로서의 체모를 갖추어나갔다.

가족과 함께



서건

첫선을 보인 《비약》 가방

요즘 평양시안의 여성들속에서 《비약》가방이 인기를 끌고있다.

보기도 좋을뿐아니라 간편하고 질도 괜찮아 많은 처녀들과 가정부인들이 《비약》상표를 단 손가방, 들가방, 멜가방들을 사고있다.

여성들뿐이 아니다. 남성들속에서도 편리하게 만든 이 가방에 대한 수요가 높다.

지난 7월에 진행된 제11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에서 《비약》가방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하다면 이 가방의 생산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비약》가방을 판매하고있는 보통강구역에 위치한 한 상점을 찾았다.

상점안에는 국내의 자재와 기술로 만든 제품들이 많았다. 특히 손님들의 관심을 끈것은 이곳 상점의 생산기지에서 만든 《비약》가방들과 《려정》상표를 단 옷들이었다.

《색갈과 형태도 그렇고 질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가방제품들을 놓고

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비약>상표이름이 귀에 선데 언제부터 제품이 나왔습니까?》

《나온지는 불과 1년도 안됩니다.》

구매자와 봉사원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결코 년만에 모든

것이 귀착되는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김은숙소장과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더 굳히게 되었다.

그가 상점산하에 제작기지를 꾸리기로 결심한것은 소장으로서 임명받았을 때였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연극단에 들어온 후에도 그는 스스로 높은 목표를 정하고 기량을 부단히 려마해왔다. 하여 작품창조때마다 기름진 역형상을 창조하곤 하였다.

말은 형상과제에 대한 높은 책임감, 연기수행에서 언제나 자기의 개성을 살릴 줄 아는 영민한 안목은 인민이 사랑하는 배우로서의 다정한 별호를 가져다주었다.

《세대주가 사람들로부터 <택근이>라고 불리울 때면 안해인 저 역시 기쁩니다. 텔레비전연속소설 <석개울의 새봄>을 촬영할 때 우리 세대주는 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특히고 말 한번 안하는 세대주가 영화에서 다정다감한 총각으로 나오는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형상을 위해 세대주가 기울인 수

고가 헤아려졌습니다. 영화를 본 동창생들과 일본에 사는 친척들은 저를 보고 세대주가 역형상을 정말 잘한다고, 배우로서 성공했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라고 그의 안해인 조성숙녀성은 말했다.

주체99(2010)년에 서건배우는 공훈배우로 되었다.

무대에,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유쾌하고 참신한 모습으로 나서곤 하던 그는 오늘 배우들의 창조기량을 책임진 과장의 중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을 쏟아부고있다.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기량은 생명과 같기에...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당시 상점에는 수입상품들이 가방과 옷이 많았다고 한다.

사실 그 상품들이란 자체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수 있는 것이었다.

자기의 것이 없는 상점을 두고 소장은 생각이 많았다.

그는 첫 사업으로 대담하게 가방생산기지를 꾸려놓을 결심을 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 가방을 만드는 곳이 많은데 이제 뛰어들어서 빛을 보겠는가고 반신반의하였다.

하지만 그는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가방공장들을 찾아다니며 기술자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워나갔다.

어떤 때에는 가방제작의 묘

리를 찾기 위해 자기의 가방들을 모두 뜯어보기까지 하였다.

한편 그는 인재를 찾기 위해 많은 품을 들었다.

그 과정에 김은경녀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으며 그들도 소장의 마음을 알고 적극 도와나섰다.

조건들이 구비됨에 따라 소장은 한주일에 한번씩 제품합평회를 조직하고 기술자들은 물론 종업원들모두가 한가지씩 좋은 안을 내놓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구매자들의 의견도 종합되었다.

대중이 발동되자 좋은 안들이 나왔다.

그 나날 《비약》가방은 집에서나 형태에서 완전히 자기의 독특한 면모를 갖춘 제품으

로 완성되어갔다.

올해 4월 그들은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걷고 남들이 뒤편 때 날자는 자기들의 마음을 담아 가방에 《비약》이라는 상표를 달았다.

《비약》가방은 나오자마자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은숙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첫걸음을 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산자대중의 힘을 믿고 상품의 품종수를 더 확대해나갈 것이며 <비약>가방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를 고수해나갈것입니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가방들은 녀성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상식

심장단련에 좋은 뽀글운동

뽀글운동은 심장을 단련하고 피흐름을 좋게 한다.

이 운동은 성별, 나이, 육체적준비정도 등에 관계없이 휴식시간을 비롯하여 아무때나 임의의 장소에서 쉽게 할수 있는 대중운동이다.

뽀글운동은 짧은 시간에 많은 운동효과를 나타낼뿐 아니라 몸을 재빠르고 날래게 하며 다리의 힘과 조약력을 높여준다. 그리고 심장을 단련하고 피흐름을 좋게 해준다.

뽀글운동을 20일간 계속하면 심장이 튼튼해진다.

심장과 폐의 지구력을 높일 목적으로 뽀글운동을 할 때 속도는 늦출수록 좋고 시간은 길수록 좋다. 나이에 알맞는 속도를 보면 20대인 경우 1분당 110~130번, 30대인 경우 1분당 90~100번, 40대인 경우 1분당 80~90번, 50대인 경우 1분당 70~80번 뛰는것이 좋다.

* * *

불야경을 펼쳐가는 사람들

조국의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이채롭게 장식하여 거리의 밤풍경을 황홀하게 하는 불장식들은 사람들의 매혹과 찬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탈리아에서 주체96(2007)년 새해를 맞으며 진행된 사진전시회에서 불장식을 한 조선의 인민대학습당사진이 인기를 모았다.

어느해인가 깊은 밤 만수대언덕에 올랐던 남조선의 한 인사는 인민대학습당의 불장식을 처음 보고 《바다속의 룡궁이 떠올랐다.》고 감탄한적도 있었다.

지난 기간 선경불장식연구소의 연구사들은 평양시와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선 수많은 건축물들의 불장식을 실현하는 과정에 풍부한 기술적경험을 쌓아왔다.

그들이 자기의 첫선을 보인것은 주체95(2006)년 인민대학습당과 천리마동상의 불장식때부터였다.

주체96(2007)년 6월 선경불장식연구소가 창립된 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조명 및 불장식분야의 과학기술개발 및 기술봉사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연구집단으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 오고있다.

20, 30대의 연구사들이 다수를 이루고있는 연구소에서는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류경원, 원산시, 남포시를 비롯한 건축물들과 지방도시들의 불장식을 맡아 진행하여왔다.

연구소에서는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에 의거하여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태양빛에너

기를 리용한 전원단, 룡동LED점광원, 대형선전화료동조종장치와 같은 불장식설비들을 개발, 생산하고있다.

지난해 박경일실장은 집광수지렌즈에 의한 선박용LED항해등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다. 연구사들은 100여척의 선박들에 시범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바다우에도 불야경을 펼쳐놓았다.

지금 이곳 연구사들은 삼지연

군건설장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도 고상하고 품위있는 불야경을 펼쳐가고있다.

소장 리인영은 《우리는 시종일관 인민의 민족적감정과 정서에 맞는 은은한 조명색을 선택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건축물의 조형예술적특성에 맞는 조명효과를 설계하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전업국 퇴직판공실 최명훈형님 앞

조국에 꼭 와보십시오



형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중국의 연길에서 형님을 만나본지도 벌써 12년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형님이 보고싶을 때마다, 가정에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쓰곤 하였습니다. 형님은 또 혈육의 정을 담아 각근하게 회답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가족들은 형제간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안곤 하였습니다.

제가 펜을 들게 된것은 얼마전에 우리 병원에 취재나온 잡지 《금수강산》편집부 기자들을 만난 기회에 형님의 안부도 묻고 우리 가정소식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님, 올해 제 나이 예순살이고 보면 형님은 여든을 바라보고있겠습니다.

형님과 제 나이차이가 거의 20년이니 솔직히 전 언제나 형님을 대할 때마다 형님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존경해마지 않았습니다.

형님, 문득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조선민족이 수난과 고통을 당하고있을 때 아버지네 온 식구가 살길을 찾아 남부녀대하고 고향인 청진을 떠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라가 해방(1945. 8. 15.)된 후 이미 가정을 이루었던 큰아버지와 다

른 자식들은 중국에 남겨두고 막내아들이였던 저의 아버지만을 데리고 고향 청진으로 돌아왔었습니다.

형님도 아다실이 할아버지는 그후 황해북도로 조동되어 보건부문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도 오늘은 보건부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지금 저는 황해북도인민병원 렌트겐과 파장으로 사업하고있습니다.

조국에서는 사람들 누구나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을 무상으로 리용하면서 예방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형님, 저의 집사람과 자식들도 잘 있습니다.

저의 집사람은 14년전에 형님네 집에 나들이를 가서 몇달동안 친척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무척 정이 들었는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며 추억하곤 합니다.

아들 춘혁이는 군사복무를 마치고 의학공부를 하고있는데 매년에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어릴적부터 자긴 의사가 되겠다고 하더니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봅니다.

출가한 딸 춘미는 시설계사업소 설계원을 하는 남편과 함께 딸자식을 키우며 행복한 생활을 꾸려가고있습니다.

형님, 이제 여든고개를 바라보는 나이이니 아무쪼록 건강에 류의하여주시시오.

그리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조국에 꼭 한번 와보십시오.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인민들의 모습과 자강력으로 나날이 변모되어가고있는 조국의 모습을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아마 마음도 몸도 더욱 젊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형님과 다시 만날 그날을 그려보면서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황해북도 사리원시 선경동 30인민반 최호림동생 올림

인상기



나는 고국방문이 처음이다. 꼭 가보리라고 생각했던 고국땅을 밟아보니 가슴이 벅차오름을 금할수 없다.

교육의 최고전당으로 훌륭히 꾸려진 김일성종합대학이며 아름다운 화족을 감상할수 있는 만수대창작사 미술작품전시관 등 고국의 여러곳을 참관할수록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중에서 제일 인상깊은것은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해외동포사업국 일군들과 함께 진

잊을수 없나

행한 체육경기였다.

나의 마음은 고국인민들과 처음으로 배구경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어지간히 긴장되어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긴장되었던 마음이 저도모르게 풀려나가는것이였다.

많이 배워달라고 하면서 따듯이 인사를 나누며 경기를 시작하는 고국의 여자배구선수들은 경기 전과정을 도덕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우리 협회팀의 배구선수들이 난도높은 동작을 수행할 때면 박수도 쳐주면서 우리를 고무해주었다.

나는 그들의 친절성에 정말 감동되었다.

경기에서는 이기고 지는것에

신경을 많이 쓴다지만 나는 고국인민들과 함께 배구경기를 하면서 경기의 승패에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것은 고국에서 고국인민들과 함께 경기를 진행했다는 자체가 나뿐아니라 우리 동포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기쁨이였기때문이다.

정말 고국에서 보낸 나날은 꿈을 꺾어도 이루어질수 없는 그런 순간들의 연속이였다. 잊을수 없다. 이런 나날을 일찌기 체험하지 못한 나 자신이 매우 민망스럽다.

나는 고국에서 보낸 나날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중국에 가서도 고국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할 결심이다.

중국 연길시 리련순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어

우리 중국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에는 애심협회가 있다.

나는 그 협회의 회장으로 사업하고있다.

협회에서는 생활이 곤란한 가정들과 장기환자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그리고 협회의 매 가정마다에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주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팔걸고 도와나서고있다.

그렇게 하니 동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협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그마한 일이 생겨도 협회에 이야기하고 또 도와주는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있다.

로 생각하고있다.

그러는 과정에 동포들사이에 자연스럽게 정이 흐르고 협회에는 덕이 넘쳐났다.

덕과 정이라는 말이 났으니 말이지 고국은 덕과정이 차넘치는 나라이다.

나는 22년간 고국을 방문하면서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남을 도와주는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고국인민들이다.

그러니 사회에는 건전한 분위기가 감돌고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과 웃음만이 차넘치고있다.

그래서 여러차례 고국을 방문한 심청송회장도 중국 단동



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안에 애심협회를 비롯한 많은 협회들을 내울 결심을 한것 같다.

나는 고국을 따라배워 우리 애심협회의 동포들이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어 민족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중국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상무부회장 전종권



고국방문

잊지 못할 나날에

- 중국 단둥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대표단 -

지난 4월 태양절을 맞으며 심청송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단둥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대표단이 고국을 방문하였다.

근 7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 성원들의 대다수가 평양방문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만수대창작사 미술작품전시관,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곳곳마다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박설 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 부비서장은 만수대창작사



미술작품전시관을 돌아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조선화, 유화, 도자기 등 모든 미술작품들이 손색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김용수 중국 단둥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부회장은 만수대창작사의 선우영선생의 미술작품을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그 선생이 살아있을 때 함께 사진도 많이 찍었다고 하면서 이런 이

름있는 작가들을 배출한 고국이야말로 훌륭한 나라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해외동포 사업국 일군들과 친선경기도 진행하였다.

얼싸 하며 땀나게 공을 넘기는 남자배구, 여자 배구경기도 볼만 했지만 응원열의 또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동포들은 만경대의 여러곳을 방문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방문을 기념하여



특히 인상이 깊은것은 바줄당기기경기였다. 서로가 힘을 모아 힘껏 당기는 바줄당기기경기는 동포들의 가슴마다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동포들은 평양에서 길지 않은 나날을 보냈지만 고국의 놀라운 전변이 어디서 왔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뜻깊은 태양절아침 위대한 김일성주석

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심청송단장은 고국방문을 마치면서 《이번 방문은 동포들에게 근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새겨준 뜻깊은 방문으로 되었을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우리는 지금 여러장의 사진을 보고있다.

지난 4월 평양을 방문하였던 중국 단둥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대표단 성원들이 해외동포사업국 일군들과 함께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진행한 체육경기사진들이다.

한장한장의 사진들을 볼수록 그때의 광경이 눈에 방불히 펼쳐지며 동포들의 모습도 한명 한명 떠오르고있다.

너자배구경기에 출전했던 리련순, 김경화선수들 비롯한 동

포들이며 남자배구경기에 나섰던 리동철선수를 비롯한 동포들.

대련, 단둥 하며 응원에 열을 올리던 응원대장 권호길동포의 모습도 안겨온다.

바줄당기기경기는 또 얼마나 여운을 남겼던가.

해외동포사업국팀에 끌려가는 자기 팀 선수들을 보기가 딱해서 몰래몰래 남자선수들사이에 끼여 《영차!》 하며 마음 맞추어 바줄을 당기던 녀성동포들.

맨앞에 서서 바줄을 힘껏 당기던 전순희상무부회장의 열기

단 상

영 차!

면 얼굴도 삼삼하다.

한번, 두번도 모자라 다섯번씩이나 진행된 바줄당기기경기는 그날 경기에서 최절정을 이루었다.

체육경기들을 통하여 동포들은 민족이 힘을 모을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더욱 깊이 체험하였다.

조선말에 싸리나무 한가치는 꺾기 쉬워도 아름다리 나무는 꺾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

서로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칠 때 그 힘은 백배해질 것이다.

하기에 동포들은 고국에서 보낸 즐거운 나날들을 추억하고 체육경기의 날을 돌이켜보며 그 어디에서 살건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할 결심을 더욱 가다듬고있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수 기

《보약》

이제는 나의 고국방문회수가 백여차에 달한다.

한해에도 여러번 고국을 방문하는 나를 보고 동료들은 또 젊어지고싶어 가는가고 묻곤 한다.

그럴 때면 나는 즐겁게 웃으며 《약》을 먹고싶어 간다고 한다.

《약》, 다들 들으면 유모아 같은 소리라고 할것 같지만 실지로 나는 고국에 《보약》을 먹으러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도 값비싼 보약을.

세계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지만 그 어느 나라에서도 맛볼수 없는 진귀한 그 약이야말로 진짜 보약이다.

그 보약만 먹으면 아프던 다리도 아프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침습해오는 병들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곤 한다.

정말 신기하다.

로씨야에서 의사로 일했던 내가 그런 소리를 하니 독자들도 펍 흥미가 동하리라고 본다.

그 약이 무엇일가 하고.

그 보약은 고국의 혼한 공기와 비약하는 현실이다.

나는 고국의 공기를 마시고 발전하는 모습만 보아도 다리에 힘이 뻗어나기 시작하며 온몸에 혈기가 넘쳐나게 된다.

올해에도 나는 고국을 방문하였다.

고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다. 어디 가나 푸른 숲이 우거지고 생태환경, 자연보호가 잘되어 갖가지 새가 우짖고 꿀벌, 나비들이 날아댄다.

고국에는 좋은 샘물도 많다. 고국에 올 때마다 샘물들을 맛보는데 정말 그 맛이 순수하고 깨끗하다.

평양의 만경봉이며 모란봉은 또 얼마나 경치좋은가.

그 아름다운 경치를 여기에 글로 다 옮길수 없는것이 유감이다. 머릿속에 기억된 표상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는 직접 눈으로 보는것보다 그 효과가 몇배로 떨어지는것 같다.

고국의 사회적시책들은 얼마나 좋은가.

누구나 무상으로 공부하고 치료받고있으며 세금도 없다. 나에게서 고국의 현실을 들은 로씨야동료들은 깜짝 놀란다.

그럴 때면 나는 그들에게 말해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조선속담도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그들도 고국에 와보고는 들던 바 그대로라고 하면서 좋은 곳에 갔다왔다고 말한다.

동포도 아닌 외국인들이 이렇게 고국에 대해 찬탄하는데 조선민족의 태줄을 이어온 한 성원인 나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고국이니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마술이라도 걸린듯 온몸에 신기하게도 기가 뻗친다는 나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본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래과학자거리며 려명거리 등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발전하고있는 고국의 약동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니 심장은 높뛰고 혈기가 왕성해진다.

그래 나는 고국에 올 때마다 새로와진 평양의 모습을 집에서 오래도록 보고싶어 여러권의 화첩들을 사곤 한다.

물론 이미전에 구입한 화보, 화첩들도 있다.



하지만 올 때마다 달라지니 그 감흥이 또 다르고 로씨야에 가서도 계속 보고만싶다.

우리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에는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화첩을 보고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그들을 위해 협회에서 한주일에 두세번씩 조선말강습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자주 만나 고국의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오늘의 현실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으며 내가 가져온 화첩도 보여주었다. 그들은 나의 말을 듣고 또 화첩을 보면서 여간 기뻐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고국을 둔것을 자랑으로 여기었다.

그리고보면 그들도 간접적으로 《보약》을 먹은셈이다.

의학계에서, 식생활에서 쓰는 보약과는 전혀 다른 이 《보약》은 다른 나라에서는 제조할래도 흉내낼수도 없는것이다.

하기에 나는 오늘뿐아니라 래일에도 이렇게 말하고싶다.

《보약》이 무진장한 고국을 나는 사랑한다고.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제1부위원장 김철성



우리 민족의 반침략투쟁사 (7)

고려 말기에 비하여 그 회수가 적어지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왜구의 침입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도 의연히 계속되었으며 적들의 만행은 이전 시기와 다름없이 매우 횡포하고 잔인하게 감행되었다.

왜구들의 이러한 침입과 약탈은 갓 성립된 조선봉건왕조의 대외적안전을 불안정하게 하였고 인민들의 평화적인 생활을 위협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고려시기에 이어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왜구의 침입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게 되었다.

성립초기 봉건정부는 일본봉건세력들을 상대로 우리 나라에 대한 왜구의 침입과 약탈행위를 금지시키도록 하기 위한 외교교섭활동을 벌리었다. 그리하여 왜구의 준동을 저지시킬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있었던 일본막부통치자는 물론 서부일본의 큰 봉건세력들로부터 왜구들의 침입을 금지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내었다. 그러나 왜구들은 연해지방으로 침입하였다.

조선봉건왕조성립이후 1419년까지 우리 나라에 침입해온 왜구를 쳐물리치기 위한 크고작은 전투는 무려 70여차례나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 애국적군대와 인민들은 210여명의 왜구들을 살상포로하고 적선 25척을 나포하였다.

바다로 기어드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하였다. 특히 왜구의 도두음긔침입사건은 왜구의 침입과 약탈을 더이상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1419년 5월 왜구는 많은 배를 끌고 충청도 비인현(서천군) 도두음긔으로 기어들어 우리 나라 싸움배들을 소각하고 군인들을 살해하였으며 도망치면서 민가에 달려들어 집집승들을 약탈해갔다. 같은 달 왜구는 황해도 연평긔에도 침입하였다.

봉건정부는 왜구가 때없이 임의의 연해지방으로 침입해오는 조건에서 적들의 소긔를 소탕해버릴 목적긔에 쓰시마원정을 단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쓰시마는 고려시기와 마찬가지로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왜구들이 도사리고있던 기본소긔이였다.

조선봉건왕조는 1419년 6월 왜구의 소긔인 쓰

시마에 대한 대규모의 원정을 단행하였다. 원정에는 총 1만 7 285명의 군사와 227척의 병선이 동원되였다.

3군도체찰사 리종무의 지휘긔에 쓰시마에 도착한 조선원정군은 연안에 정박하고있던 적선 129척을 로획하여 그가운데서 쓸만 한것 20척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불태워버리었다. 그리고 적들이 도사리고있던 1 939호의 가옥들을 소각하였다. 이 과정에 원정군은 114명을 격멸하였으며 21명을 포로하는 전과를 올렸다.

원정군은 첫 전과에 만족하지 않고 포구와 산림속에 들어박혀 저항하는 적들에 대한 소탕전을 전개하여 68호의 가옥과 적선을 소각하였으며 왜적들을 격멸하고 랑치당하였던 주민 20여명을 구원하였다.

궁지에 빠진 쓰시마도주는 원정군을 철수시키고 강화를 체결할데 대하여 요청하여왔다. 원정군은 쓰시마의 왜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도주의 초보적인 투긔약속을 받았으므로 장마철의 폭풍이 밀려오기 전에 철수하였다. 이것이 1419년 조선봉건왕조시기 단행한 쓰시마원정이였다.

1419년에 단행된 쓰시마원정은 왜구의 침습을 종식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왜구의 소긔를 소탕하고 된타격을 가함으로써 쓰시마왜적들을 굴복시키고 복속시킨 것이다.

원정이 있던 그해 9월 쓰시마도주는 투긔의사를 표시하고 신하로 인정하는 도장을 내려줄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조선봉건왕조에 보내왔다. 그리고 도두음긔을 침략한 죄인들과 그 처자들을 불잡아놓고 처분을 기다린다고 알려왔다.

이처럼 쓰시마원정을 통하여 왜구의 배후조종자인 동시에 그 우두머리였던 쓰시마도주를 굴복시킴으로써 왜구의 빈번한 침입과 약탈행위는 일단 끝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도 우리 인민은 바다를 건너 침습해오는 왜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고 민족의 기상을 높이 떨치였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부교수 주성철

조긔의 각 도 특산물들 (11)

평안남도의 특산 - 성천담배

평안남도의 특산물들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천담배도 있다.

16세기말부터 우리 나라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담배는 초기에는 약재로 재배되기 시작하다가 점차 사람들의 기호작물로 전환되게 되면서 그 재배가 더욱 확대되였다. 그 과정에 담배재배로 이름높은 명산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담배명산지들중에서도 가장 이름난 곳이 평안남도의 성천일대였다.

예로부터 성천담배는 색깔이 곱고 맛이 향기로 운것이 특징이다.

일명 담배잎을 썰면 금실같다고 하여 《금실담배》, 서북지방에서 나는 담배라는 뜻에서

《서초》, 담배맛이 매우 향기롭다고 하여 《성천향초》라고 불리워왔다.

《림하필기》, 《경도잡지》를 비롯한 력사문헌들에는 성천일대의 넓은 지역이 담배밭으로 련결되어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금실담배를 민간에서 서초라고 하였는데 매우 진귀하게 여기는 담배라고 기록되어있다.

성천일대에서 생산되는 담배는 조선봉건왕조시기 주요공물의 하나로 되어있었다.

이것은 성천담배가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특산물의 하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조병철



유모아

한 농부가 억울하게 잡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하루는 안해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곧 감자를 심어야 하는데 나 혼자서는 땅을 두질수가 없어요.》라고 씌여져있었다.

농부는 안해의 편지를 보고 곧 회

농부의 편

답편지를 썼다.

《감자밭은 파지 마오. 내가 거긔에 금을 한단지 묻었소.》

죄인의 편지는 모두 간수가 보게 되어있었으므로 이 편지도 레외로 되지 않았다.

며칠후 농부는 또다시 안해의 편

지를 받았다.

《이틀전에 10여명이 와서 우리 땅을 몽땅 파헤쳐놓았어요.》

농부는 웃으며 인차 안해에게 《이제 감자를 심으면 되지 않소!》라고 편지를 썼다.

* * *

천연의 맛과 향기가 담겨진 우영차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금빛이 도는 우영차 한잔을 앞에 놓고있습니다.
 이 우영차는 얼마전 재중동포들과 함께 평양의 멋들어진 대성백화점을 돌아보며 산것입니다.
 그때 동포들은 조국의 우영차의 맛과 향기가 특별히 좋다고 감탄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모릅니다.
 김을 문문 울리며 구수한 향기가 풍겨나는 우영차를 한모금 마시니 저의 가슴속은 뜨끈해지면서 향토적인 정서가 온몸에 차넘치는것만 같습니다.



참, 아십니까?
 우영이 어떤 식물이며 우리 조국에서 우영의 재배력사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말입니다.
 굳이 설명해드린다면 우영은 일명 우영이라고도 하는데 국화과에 속하는 두해살이뿌리남새작물입니다.
 우리 나라 북부지방에는 아직도 야생우영이 자라고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1 000년전부터 잡초로 자라고 있던 우영에 약리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것을 알고 조선동서해안지방의 집 터밭에서 많이 재배하였습니다.
 인삼과 견줄만큼 사람의 몸에 유익한 약리적성분이 우영의 뿌리에 많이 포함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우영을 동양인삼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하여 선조들은 우영을 고급약재로, 가정에서는 식품으로

로 널리 리용하여왔습니다.
 그럼 우영뿌리의 고유한 맛과 영양성분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우수한 가공기술을 받아들여 만든 음료제품인 우영차가 사람들의 건강에 어떻게 좋은가 하는데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영차개발자인 양흥무역회사 부원 신은정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일생동안 7~8만고뿌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물을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천연건강차로 대신한다면 인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우영차를 마시면 입맛이 당기고 기분이 상쾌해지며 배안에서 가스가 쭉 빠지는 감을 느끼게 된다는것이 사용자들의 한결같은 반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항암, 청심, 해독, 비만방지에 효과가 있고 뼈조직의 활성을 높여주며 당뇨병, 류마치스성 질병치료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리노가 잘 되고 피를 맑게 하며 혈압을 낮추는 다양한 기능으로 하여 우영차를 마시는것은 오늘 세계적추세로 되고있습니다.

특히 우영차는 몸상태를 점차적으로 평형상태에 이르게 하는것으로 하여 몸무게를 줄이려는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높습니다.》
 동포여러분, 보다싶이 우영차는 다양한 효능을 동시에 나타내고 그 맛 또한 독특한것으로 하여 고급영양식품이라 일러주고있습니다.
 우영차를 마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된 우영뿌리편이 여러개 들어있는 우영차 한봉지를 뜨거운 물 100~200ml에 5분간 담그어 3번정도 우려마실수 있습니다. 색이 더이상 우려나오지 않으면 남은 우영뿌리를 찬이나 밥에 넣어 요리하거나 그냥 씹어먹어도 좋습니다.
 끓여마시는 경우에는 물 500ml에 차 한봉지를 넣고 2~3분 끓입니다.
 이때 사탕가루나 붉은 대추, 인삼조각을 함께 넣어 끓이면 더 좋습니다. 팽차로 마시는 경우 차 한봉지에 200ml의 물을 넣고 우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조국의 대지에 뿌리박고 자란 우영의 천연의 맛과 향기가 담겨진 이 차를 늘 즐겨마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본사기자 연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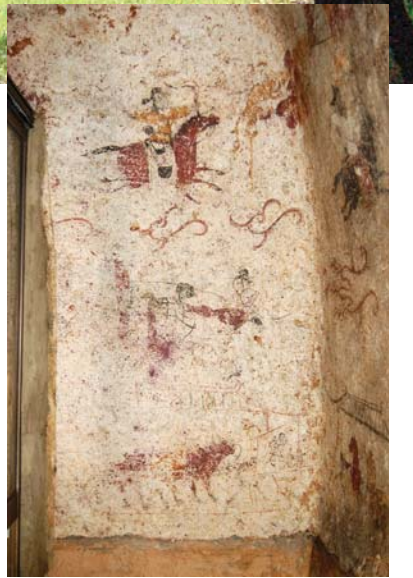


남포시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3)

- 약수리벽화무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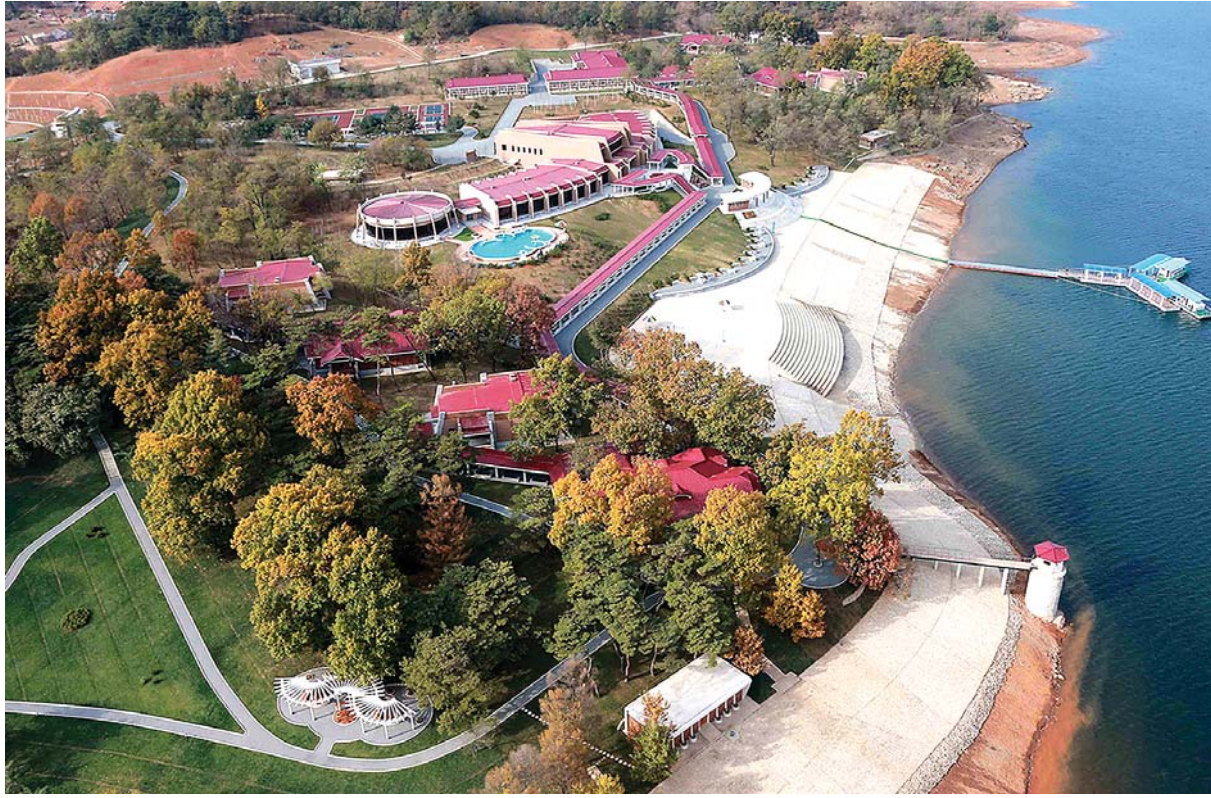
약수리벽화무덤은 남포시 강서구역에 있는 5세기초의 고구려벽화무덤이다.
 주체47(1958)년에 조사발굴된 약수리벽화무덤은 인물풍속 및 사신을 그린 감이 있는 무덤이다.
 무덤의 방향은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남향이다.
 무덤칸은 안길, 앞칸, 안칸 및 그 사이길로 이루어져있다.
 앞칸과 안칸의 천정은 궁륭으로 쌓아올라가다가 3각고임으로 마감한 궁륭3각고임형식이다.
 무덤안에는 판대와 제단이 있다.
 무덤에는 3각고임부분을 내놓고 앞칸과 안칸의 모든 벽면과 천정에 벽화를 그렸다.
 벽화는 회죽미장을 한 벽면과 천정에 밀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색을 칠하는 방법으로

그렸다.
 안칸벽화의 주제는 주인공부부의 실내생활과 사신이다. 사신도는 안칸의 북쪽벽에 현무, 동쪽벽에 청룡과 해, 서쪽벽에는 백호와 달, 남쪽벽에 주작을 그렸다. 또한 각 벽에는 구름무늬, 별자리들을 그렸는데 그중 북벽에는 북두칠성이 있다.
 앞칸에는 주인공인 고구려귀족의 위엄과 권세를 시위하는 장엄한 행렬도와 규모가 큰 사냥그림이 있고 마구간, 부엌, 방아간, 문지기장수, 외양간, 주인공의 실내생활, 시중군들의 움직임 등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
 행렬도에는 주인공이 탄 수레를 중심으로 그 앞뒤와 량옆에 말과 사람이 다 갑옷을 입은 개마무사, 도끼를 멘 사람, 기수, 악대, 마부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모습이 그려져있다.



앞칸 북쪽벽의 성곽도에는 네면에 2층문루가 있고 성의 모서리에 각루가 있으며 여러채의 기와집도 보인다.
 사냥그림은 사냥군들이 북을 치고 빨나팔을 불면서 사냥터로 가는 장면과 사냥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있다.
 약수리벽화무덤은 무덤칸의 독특한 채임새와 다양하고 풍부한 벽화내용을 통하여 강대하였던 고구려의 위력과 그것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있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김지성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11)

- 연 풍 호 -

조국의 명승지들중에는 평안남도 안주시와 개천시 사이에 있는 연풍호도 있다.

연풍호는 열두삼천리벌에 생명수를 주는 수원일뿐 아니라 호반의 전망이 좋고 경치가 아름다와 명승지로 알려져있다.

연풍호와 그 주변은 무더운 여름에도 서늘하며

기슭에서는 물결까지 일어 내륙이지만 바다구경을 하는것 같은 느낌을 준다.

호수는 면적이 14.58km², 둘레가 88.5km, 길이 18.7km, 너비 0.8km이며 북남방향으로 놓여있다.

호수는 2개의 큰 물갈래로 되어있으며 그 물갈래들에 많은 구미들이 있어 호안선의 나들이가 심

하다.

집수구역은 천왕산, 송암산, 남해산, 려정산을 비롯한 산들에 둘러싸인 야산지대로 되어있다.

집수구역안의 산비탈면의 물매는 느리다.

집수구역에는 소나무, 이깔나무, 잣나무, 참나무, 황철나무, 밤나무가 우거져있어 수원함량조건이 매우 좋다.

연풍호는 대동강물과 대기강수를 기본수원으로 하고있다.

호수에는 잉어, 붕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있다.

연풍호는 이밖에도 대동강의 큰물조절에도 큰의의를 가진다.

호수의 기슭에는 연풍호소년단야영소와 연풍과 학자휴양소를 비롯하여 인민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누릴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져있다.

오늘 명승지의 하나로, 휴양지로 훌륭히 꾸려진 연풍호로는 수많은 인민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김지성



계월향비에 깃든 이야기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되어온 정원용(1783년-1873년)은 첫 사업으로 기생들의 청탁을 취급하게 되었다.

평양부의 기생 죽엽이 뜻밖에도 임진년의 의로운 기생인 계월향의 애국적소행을 나라에서 인정하고 그의 공로를 새겨 넣은 비석을 세워주길 바란다는 청을 올린 것이다.

정원용은 대뜸 옥설부터 앞세우며 단마디로 잘라버렸다.

글쎄 하찮은 기생의 비를 세워달라니 불쾌하기 그지없었던 것이다.

쌓여진 일감으로 그럭저럭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해 여름 정원용에게 선비들 여러명이 찾아와 청을 올렸다.

《우리들은 평양에 태를 묻고 살아가는 선비들로서 이 땅에 깃든 유구한 력사에 대하여 잘 알고있나이다. 예로부터 평양성에는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충신들이 많습니다. 그들속에는 임진년에 왜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한몸을 바친 의로운 기생 계월향 이도 있소이다.》

《계월향?!》
이름을 되풀이보는 정원용의 머리속에 문득 부임한 날에 기생의 청을 사연도 묻지 않고 매정하게 잘라버리던 일이 떠올랐다.

《그래, 그대들도 계월향의 비를 세워달라는 청원을 하자는 것이요?》

《그렇소이다.》

《한갓 천한 기생이 무슨 큰공을 세웠다고 비를 세워주자고 하오?》

사또의 말에 평양부의 이름있는 한 선비가 절절히 아뢰었다.

《계월향의 공적에 대하여서는 <평양속지>를 보면 자세히 알수 있소이다. 그리고 감사어른께서 종로네거리나 월향이 나서자란 마을 등 부안의 그 어디에서 누구든지 데려다 물어보아도 중 념불외우듯 이야기하는 계월향의 의로운 소행을 들을 수 있을것이오이다. 먼지번 사또께서 우리 선비들과 기생들의 청을 듣고서 기생동네에 집을 세내어 비단에 월향의 화상을 그려놓고 가을에 제를 지내게 하여주었으나 그것은 월향의 공적을 오래도록 전하는데서는 부족점이 있다고 우리 평양사람들은 누구나 한스럽게 여기고있나이다.》

월향의 의로운 소행을 길이 길이 전해가려는 그들의 고결한 마음에 깊이 끌려 들어가면서도 정원용은 머리속에 완고하게 틀고앉은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

월향이는 도대체 어떤 공적을 남긴 녀인이길래 평양성사람들의 추억속에 오래동안 남아있는 것이냐?

그는 《평양속지》에서 임진년의 사실을 기록한 부분을 읽어 내려갔다.

…계월향은 왜놈들이 평양성안에 들어왔을 때 미처 피난하지 못하여 적장놈에게 잡힌 몸이 되었으나 자기의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여 김응서를 오라버니로 가장시켜 적진속에 들어오게 한 다음 적장을 만취시켜놓고 김응서로 하여금 목을 베게 하였다. 월향은 왜적들이 쫓아오자 김응서가 빨리 피신할수 있게 방어사의 칼을 당겨 웃으며 자결하였다.

계월향의 의로운 애국적소행은 평양사람들에게 투쟁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
《평양속지》를 덮고난 정원용은 가슴을 치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조정 관리들도 제 한몸을 먼저 생각하며 왜적들을 피해 달아나고 있을 때 한갓 천한 신분을 가진 계월향이 나라를 위해 자기의 꽃다운 생을 서슴없이 바치었으니 사람들이 오늘도 그를 추억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는 즉시에 평양부 서윤과 관속들을 모아놓고 계월향의 공적을 새겨넣은 비를 세워줄뿐 아니라 사당도 세울것을 의논하고 조정에 장계를 올리였다.

계월향의 사당과 비를 세운다는 소식을 들은 성안의 사람들과 기생들은 모두가 떨쳐나서 터를 닦고 비돌을 다듬는 일을 성의껏 도와나섰다.

정원용은 비돌이 완성되자 직접 비문을 지었다.

그리하여 1835년 6월 을밀대의 남쪽 따스한 곳에 《의렬사》 사당이 완성되었으며 그 앞뜰에 계월향의 애국적공로를 담은 775자로 된 비석이 세워졌다. 그때가 바로 월향이 세상을 떠난지 243년이 되는 해였다.

이렇게 계월향의 비는 평양사람들의 반침략애국심의 발현으로 세워지게 되었으며 오늘도 애국심을 심어주는 국보적인 유적유물로서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 * *

윤희의 도량

조선봉건왕조 제4대왕 세종시대에 윤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도량이 크고 생각이 웅심깊었다.

윤희가 젊었을 때 있는 일이다.

어느날 그는 산간마을을 지나다가 해가 저물어 부득불 어느 한 집에서 묵어가게 되었다.

처음에 집주인은 윤희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나서 방이 없다는 구실을 대면서 들여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방이 없으면 마당에서라도 자게 해달라고 윤희가 거듭 사정을 해서야 주인은 미심쩍은 눈길을 감추지 못하면서 마지못해 들여놓았다.

《대단히 고맙소. 맥의 처마 아래서라도 하루밤을 새우고 가겠소.》

윤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문안으로 들어와 뜰 한모퉁이에 자리 잡고 앉았다.

이때 그의 앞에서는 네댓살 되여 보이는 주인집아들이 무슨 구슬 하나를 가지고 놀고있었다.

아이는 구슬이 뜰에 떨어져 구는것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즐겁게 놀았다. 그러는 사이에 뜰안에 들어와있던 계사니가 이 구슬을 무슨 먹을것으로 알고 삼켜버리였다.

한참만에 제가 가지고 놀던 구슬이 없어진것을 깨달은 아이는 울상이 되어 여기저기 더듬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야말았다.

그것을 보고 주인도 뜰안을 헤매며 구슬을 찾았다.

구슬은 이미 계사니가 삼켜버렸으므로 뜰안에 있을리 없었다.

주인은 윤희의 초라한 모습을

새삼스럽게 훑어본 다음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네가 훔쳐서 감췄지?》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향을 지르다가 더는 참지 못하겠는지와락 달려들어 윤희를 대문옆에 있는 나무에 결박해놓았다.

《오늘밤은 그대로 재우지만 래일아침만 되면 너를 관가에 끌고가겠다. 네가 도적 같아보여서 내가 너를 재우기 싫어한것이다.》

주인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울러댔지만 윤희는 조금도 성을 내지 않았다.

《잘 알았소. 그런데 주인에게 청할것이 하나 있소.》

《청은 무슨 청이냐?》

주인은 눈을 부라리며 집어삼킬듯이 노려보았다.

《다른게 아니요. 저 계사니도 나처럼 이 나무에 붙들어매 놓으면 좋겠소.》

윤희는 여전히 점잖은 태도로 천연스럽게 말하였다.

《무엇이? 네가 계사니까지 훔쳐갈 생각을 품고있는 모양이구나!》

《허허, 이 나무에 묶이운 내가 무슨 수로 그런짓을 하겠소. 두말 말고 이 청만 들어주시오.》

이 말을 듣고 눈을 깜박이던 주인은 계사니를 끌어다가 나무에 붙들어매놓았다.

다음날 날이 밝자 주인은 윤희에게 《인젠 날이 밝았다. 이제 곧 너를 관가에 데리고 갈테다. 그 구슬은 대대로 물려오는 우리 집 보물이다. 훔친 구슬을 내놓아라!》 하면서 발을 구르며 호통쳤다.

그러나 윤희는 태연자약한 태도로 《그만 떠들어대고 계사니

가 똥을 누었거든 그것을 헤쳐보시오.》 하고 일러주었다.

윤희의 말대로 주인이 가서보니 구슬의 절반은 계사니 똥속에 묻혔는데 나머지 절반이 로출되어 유난히 번쩍거리고있었다.

구슬을 찾아온 주인은 윤희에게 다가가 미안한 어조로 말하였다.

《어제 계사니가 구슬을 삼켰다고 말씀해 주시였다더라면 그런 욕을 당하지 않았을터인데…》

한동안 주인의 말을 듣기만 하던 윤희는 마침내 껄껄 웃었다.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계사니가 구슬을 집어삼켰다.> 고 말했다라면 그대는 서슴지 않고 계사니의 배를 갈랐을것이네. 그러면 산 생명 하나가 없어졌을것이고 집재산이 줄었을게 아닌가. 그래 내가 한때의 모욕을 혼연히 넘긴것이니 여러말할것 없네.》

주인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땅에 넘죽이 엎드려 절을 하였다.

《손님은 성인이십니다. 참으로 산 신명이십니다. 계사니란 미물도 그 거룩하신 덕을 찬송할것이올시다.》

《착한 일을 하는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오는것이네. 나의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게.》

윤희는 하루밤 《신세》를 진 주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후날 높은 벼슬에 올랐을뿐 아니라 학자로서의 최고직인 대제학까지 되어 온 나라에 이름을 떨치였다고 한다.

* * *

친일매국당의 뿌리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본은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에 대한 남조선 대법원의 판결에 경제보복조치로 대답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이로 하여 지금 남조선에서 반일기운은 급격히 고조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강제징용피해자문제를 비롯하여 과거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일본은 그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할 대신 책임인정까지 회피하며 재침에 광분해오고있다.

그러한 일본이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두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경제보복의 칼을 휘둘러대고있으니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저주와 분노, 증오가 폭발된것이다.

그러나 유독 《자한당》을 비롯한 남조선보수세력만은 일본

의 조치를 비호두둔하는가 하면 남녘민중의 반일투쟁을 중상모독하면서 타협과 굴종을 설교하고있다.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자한당》보수세력이 조선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느니, 《오히려 지금은 친일을 할 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일본정부》라는 망언까지 내뱉는것이다.

《자한당》의 망동은 반일투쟁에 나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천추만대를 두고 아물수 없는 민족의 상처에 두번다시 소금을 뿌리는 대역죄이다.

력대로 남조선보수세력이 일본에 아부굴종하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 각계가 《친일의 원

조》라고 지탄하는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죄악부터 놓고보아도 역도는 일찌기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적극 협력하여 《특등일본인》으로 악명을 떨친 매국노이다. 그후 《정권》을 찬탈한 후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지 못한것은 불행한 일》이라느니, 《제2의 리완용이 되더라도 회담을 꼭 성공시키겠다.》느니 하고 떠벌이면서 일본과 굴욕적인 매국협정을 체결하고 일본의 과거죄악을 무마해버리었다.

보수세력의 친일망동은 리명박, 박근혜 《정권》시기에 절정에 달하였다.

리명박역도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현해탄을 건너가 일본왕을 《천황》이라고 하면서 굽신거리고 서울에 초청하는 쓸개빠진짓을 하였는가 하면

《친일우호》니, 《조용한 외교》니, 《자제》니 하고 떠들며 일본의 역사교과서외곡과 독도강탈책동 등을 감싸주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에 의한 《식민지근대화》론을 제창하며 인민들의 반일감정을 우롱, 모독하는 망발들을 수없이 해댄자가 바로 리명박역도이다.

박근혜역도의 친일사대매국행

위, 대일굴종외교도 온 겨레의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자아냈다. 역도는 집권초기부터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쫓아박은 《합의》라는것을 꾸며냄으로써 구천에 사무친 한을 품고있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령혼을 팔아먹었다. 나중에는 상전을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칠 야망밑

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함으로써 일본의 재침의 길까지 열어주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처럼 일본을 상대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킬 대신 과거청산을 외면하고 재침책동에 기승을 부리는 일본에게 놀리워아부굴종한 남조선의 력대 보수 《정권》들의 망동이 일본으로 하여금 오늘의 오만방자한 경제보복의 칼을 휘둘러대게 하였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사대매국으로 명줄을 부지해오며 대대로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죄악을 끼친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것이다.

《자한당》과 보수세력이 인민들의 정의로운 반일투쟁을 가로막고 외세에 아부하여 잔명을 부지하려고 발악할수록 그것은 력사의 무덤속에 매장될 종말의 시각만 재촉할뿐이다.

본사기자



력사인물

실학자 리수광

리수광(1563년-1628년)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활동한 실학의 선구자이다.

1585년에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은 홍문관제학, 좌참찬 등을 지냈다.

임진조국전쟁시기 경상방어사 조경의 부대에서 싸웠으며 함경도에서 의병들의 투쟁도 지원하였다. 그후에도 도체찰사 류성룡(1542년-1607년)의 종사관이 되어 계속 전쟁에 참가하였다.

그는 조선봉건왕조에서 높은 벼슬을 하면서 임진조국전쟁도 직접 겪었고 또 사신으로 다른 나라에도 여러번 다녀오는 과정에 자신의 체험과 보고 들은것을 통하여 당시 봉건제도의 약점을 점차 알게 되었으며 다른 나라들의 정치와 문화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현행 제도를 일정하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리수광은 현실과 떨어진 공리공담을 반대하고 학문을 쓸모있게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천문, 력학, 지리, 의학, 동식물 등 자연과학과 정치, 경제, 력사, 어학, 문학, 제도, 풍속, 종교, 철학 등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 사업을 널리 진행하였다.

자연과학분야에서 그는 대상들에 대하여 깊은 주목을 돌리고 연구를 거듭하는 진지한 학구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학풍은 새로운것이었고 또 적지 않은 성과도 가져왔다.

사회관계 학문에서도 종래의 고루한 학자들과는 달리 학문연구를 현행제도의 변경에 대한 의견과 결부하여 진행하는 새로운 학풍을 보여주었다.

그는 임진조국전쟁때의 의병들의 활동과 리순신(1545년-1598년)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해외통상을 발전시킬것과 다른 나라의 일부 앞선 문화적측면들을 받아들일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인민들에 대한 무질서하고 가혹한 착취를 조절하는것이 곧 부국강병책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실학학풍을 처음으로 내세우고 자신의 학문연구를 통하여 적지 않은 공적을 남긴 리수광의 업적은 조선봉건왕조 말기 실학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

조선속담 (옷과 관련)

- 가랑비에 옷 젖는줄 모른다
눈에 잘 뜨이지 않는 작은 일이 쌓이고쌓여서 엄청나게 크게 된다는것으로서 작다고 알보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고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마음씨가 고우면 옷의 앞섶이 아문다
아름다운 마음씨는 그 사람의 걸모양에도 나타남을 비겨 이르는 말.
- 못 입어 잘난늬 없고 잘 입어 못난늬 없다
옷을 잘 입으면 누구나 다 잘나보인다는것을 이르는 말.
- 옷이 날개
옷을 단정히 잘 입으면 사람의 풍격도 높아보인다는 뜻으로 옷차림을 깨끗하고 단정히 잘해야 함을 이르는 말.

* * *

일본의 미래는 어디에

일본이 지난 5월부터 《헤이세이》년호대신 《레이와》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레이와》라는 말은 《아름다운 조화》를 의미한다고 한다.

일본집권자는 《〈헤이세이〉를 계승한 〈레이와〉 시대에 일본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최근시기 일본당국의 행태들을 보면 집권자가 말한 《일본의 빛나는 미래》라는 의미를 다시금 음미해보게 한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남조선의 대법원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배상할데 대하여 판결하였다.

그에 대해 일본당국은 그 무슨 《신뢰관계훼손》을 운운하며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일본의 대응조치라는것이 남조선에 대한 수출규제조치이다.

우리 민족에게 천추에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고도 사죄와 배상은커녕 온갖 망언과 망동을 일삼다 못해 남조선에 대한 경제보복까지 감행하고있는 일본의 처사는 실로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반인륜적만행은 오늘도 겨레의 가슴마다에 아물수 없는 원한의 상처로 남아있다.

너무나도 마땅한 의무를 지니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과거를 대하는 태도가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

일본내각관방장관 스가는 조

선인강제징용과 관련하여 이전 《조선반도출신 로동자》들의 일본국내에로의 류입은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별적인 도향이었다, 정부는 그러한 인식을 주장하고자 한다고 력설하였다.

지난해 집권자는 어떻게 해서나 일제의 조선인강제동원사실을 숨기기 위해 징용이라는 표현사용을 금지시켰고 강제징용로동자들을 이전 《조선반도출신 로동자》로 부르도록 하였다.

또한 수십년동안 조선인강제징용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있으며 강제징용시설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빼앗기 등록하는 철면피한 망동까지 부리고있는 사실들은 일본이 력사외곡, 력사부정을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가를 보여준다.

력사는 그자체가 진실이고 그대로가 산 증거이다.

하다면 일본이 한사코 범죄의 산 증거들을 없애치우려고 발악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단 한가지 범죄력사를 뒤풀이하겠다는 로골적인 선언이다.

집권세력은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저들에게 의존한 남조선경제의 급소를 찌르고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더욱 예측시키고 그것을 정치분야에로 확대하려 하고있다.

군국주의후예들인 아베세력의 흥심은 어디 갈데 없다.

또다시 조선반도를 타고앉아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

현해보려는 군국주의야망의 뚜렷한 발로이다.

아베세력은 임의의 시각에 해외침략의 포성을 울릴수 있게 헌법을 뜯어고쳐 전쟁국가로 변신하려고 책동하면서 렬도전체를 군국주의소용돌이속에 몰아넣고있다.

일본우익세력들의 군국주의광증은 이미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섰다.

《독도는 일본고유의 령토이다.》라는 망언이 매일같이 터져나오고 군국주의광신자들이 야스구니진자에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고있다.

여론을 부추겨 사회를 더욱 우경화하면서 국내분위기를 헌법개악과 군국주의부활에 유리하게 끌고가자는것이 아베세력이 노리는 목적이다.

일본군국주의아성인 도쿄의 한복판과 군함에서 전범기가 빼앗기 휘날리고있으며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규정하는것이 《방위의 근본》이라고 횡설수설하며 헌법개악에 열을 올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재침야망은 실현불가능한 망상이다.

절대로 되돌려세울수 없는것이 력사의 흐름이다.

오늘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재침야망의 실현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과거청산이다.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벗어나 죄악으로 얼룩진 피묻은 과거를 성근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배상하는 바로 여기에 일본의 미래가 있다.

본사기자

산소음이온수



금강록색기술사에서 개발한 산소음이온수가 사람들속에서 호평이 높다.

산소음이온수는 세포활동에 필요한 산소음이온이 많이 포함되어있고 회합도가 작아 세포막투과성이 좋은 활성이 센 기능성물이다.

산소는 생명의 기본원천이다. 사람들이 먹는 모든 영양물은 세포안의 사립체에서 산소의 작용으로 에너지를 전환되어 생명활동에 리용되며 따라서 사립체를 생명의 《발전소》라고 부른다. 4분간만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세포는 죽는다. 현대생명과학은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4분후부터 생기는 저산소성

인자(HIF)를 발견하였으며 이것이 DNA의 70여개 장소에서 병적과정을 일으켜 노화촉진과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해명하였다.

산소음이온수는 사람몸에 부족한 산소를 충분히 보충해주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산소음이온수를 정상적으로 마시면 노화를 막을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

30여년간의 치료경험을 가지고있는 산소음이온수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젊음을 가져다 줄것이다.



신평금강의 가을 본사기자 김성철



황해북도의 신평금강에 가을이 왔다.
성벽처럼 마주선 기암절벽들에 펼쳐진 붉은 단풍은 계곡경치로 이
름난 신평금강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이곳은 산악미와 크고작은 폭포들이 조화를 이루어 사계절 관광지
로 알려져있다.